

# 한인뉴스

2016

2

VOL. 236

haninnewsinni@gmail.com



한인회장 이·취임식  
 취임 영연  
 0일 자 국문화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 SAMSUNG Gear VR

Powered by  **oculus**

Vision Just Got Real



Compatible with Samsung Galaxy S6, S6 edge, S6 edge+ and Note5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너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sup>h</sup>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20	1725	월,목,일	30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0010 <sup>h</sup>	수,토,일	300-200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 The Banker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The Banker 선정 역대 아시아 최우수 은행

2011년 홍콩 HSBC

2012년 싱가포르 DBS

2013년 호주 ANZ

2014년 중국 공상은행

**2015년 KEB 하나은행**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우수 은행상 수상**

**Bank of the Year in Asia-Pacific 2015**

세계가 대한민국 금융의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이 세계일류은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KEB 하나은행**



## 동남아시아 뎅기열 발생 증가에 따른 유의 안내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감염병(제4군) ICD-10 A90</li> <li>▫국내에서는 2000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발생은 없으나 해외유입 사례가 매년 100-200건 신고됨. 주요 추정감염지역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임.</li> <li>▫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걸쳐 전 세계적 분포. 세계보건기구는 뎅기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약 1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li> </ul>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li> <li>- 4개 혈청형 : DEN-1, DEN-2, DEN-3, DEN-4</li> </ul>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매개체 :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li> <li>- 주로 낮에 흡혈. 우리나라에는 흰줄숲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나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된 적 없음</li> </ul>
잠 복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개 4-7일 (범위 : 3-14일)</li> </ul>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성 발열성 질환</li> <li>- 주요 증상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출혈 등</li> <li>- 질병의 경과가 다양하며,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70-80%</li> <li>▫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li> <li>- 성인보다 소아에서 주로 발생</li> <li>- 경고 징후 : 심한 복통, 지속되는 구토, 빠른 호흡, 잇몸 출혈, 피로, 안절부절 못함, 피가 섞인 구토 등</li> <li>- 이전에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자가 다른 혈청형에 재감염 되면 중증 뎅기열로 진행하기 쉬움</li> <li>- 혈장유출, 체액저류, 호흡곤란, 심한 출혈,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함</li> </ul>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li> <li>▫혈청학적 진단 :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증가</li> </ul>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증치료. 출혈성 경향이 있으므로 수액 보충 필요</li> <li>▫아스피린 등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 금지</li> <li>▫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중증 발현을 막는 것이 중요</li> </ul>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격리 : 혈액 및 체액 격리(헌혈 금지)</li> <li>▫접촉자격리 : 필요 없음</li> </ul>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li> <li>※모기노출 방지</li> <li>┌방충망, 모기장, 기피제 사용</li> <li>└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li> </ul>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가 평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뎅기열 해외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우기임에 따라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뎅기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감염경로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의한 감염
- 나. 주요증상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출혈 등
- 다. 잠 복 기 : 3-14일(대개 4-7일)
- 라. 예 방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첨 부 : 뎅기열 질병 개요 /끝/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 주의 안내

1. 최근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를 포함하여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지카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인도네시아도 작년에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한 만큼 동포여러분들께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유의하시고 지카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국가 및 지역 방문을 삼가시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경로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의한 감염

나. 주요증상 :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

다. 잠복기 : 3-14일

라. 예방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마. 최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 질병정보사이트’(<http://travelinfo.cdc.go.kr>)에서 확인 가능

구 분	내 용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발생과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li> <li>▫2015년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 발생보고가 2015년의 경우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총 24개국(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유행 중</li> </ul>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카바이러스(Zika virus)</li> <li>-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li> </ul>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매개체 :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li> <li>-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매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li> </ul>
잠 복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4일</li> </ul>
주요증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성 발열성 질환</li> <li>- 주요 증상 :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li> <li>-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80%</li> <li>▫합병증 및 사망</li> <li>-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전세계적으로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 없음</li> <li>※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증가 가능성 제기되어 관련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li> </ul>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li> <li>※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가능</li> </ul>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li> <li>▫통증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치료</li> </ul>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li> <li>- 모기노출 방지 :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li> </ul>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2016.1.20)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차례.....8

논설위원 칼럼/ 프리포트 <김문환>.....10

이선진 전대사의 일기/2005년 SYB 부산 방문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12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19

이모저모 한인사회.....20

변해야 산다.  
누가, 어디가, 언제..?  
서로를 향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추기위한 변화란  
산만하고 힘이 듭니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나아갈 바를 정하고 움직이던 그때와  
모든 일이 과정으로 느껴지는 지금은...

변라진 주기에 섰팅이라는 과정은  
이제 일상이 되어갑니다.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전망과 지표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 취임식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대회 제 7,8 대 반동한인회장 이, 취임식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 인도네시아 태권도 문예총 정기 총회 한. 인니문화연구원과 서울예술대학교 MOU체결 리틀램 유치원, 자카르타국립대학교와 상호업무 협약체결 JIKS소식 JIS소식	지상갤러리/ 태교2010, 신선미 <김현경>.....42
비밀이 있는 가구 <최조은>.....32	집중! 이 사람/ KEB 하나은행, 이화수행장.....44
늬다리 만학도의 BIPA도전기<윤석진>.....34	행복에세이 <서미숙>.....46
2016년 1월의 경제브리핑.....38	법률해설/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신정부령 <이승민>.....48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50
	이달의 추천 BOOK <편집부>.....54
	현대사회의 설.....57
	생활정보.....61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양영연 / 편집인 : 강희중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리포트

김문환/논설위원

식민통치가 종말을 고하기 몇 해전인 1936년, 네덜란드 지질학자 진 도지(Jean Dozy)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관할인 서부이리안(Irian Barat)의 고산지대 띠미까(Timika) 지역 서베이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상엔 엄청난 양의 금, 은, 동 매장량이 적시되어 있었지만, 구라과 전역에 전운이 감도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시기상조였기에 보고서는 일단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서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된다.

미국 뉴올리안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광업회사 프리포트 설퍼사(Freeport Sulphur)는 1959년 발발한 ‘쿠바혁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쿠바로부터의 니켈 수출이 첫선적을 바로 눈 앞에 둔 채 좌절된다. 파산직전에 이른 프리포트 설퍼사의 책임자 포브스 윌슨(Forbes Wilson)은 네덜란드 기업 이스트 보르네오 인도네시아사(East Borneo Indonesia) 사장 반 그루센(Van Gruisen)을 만나 띠미까 광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반 그루센은 ‘진 도지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다. 탐사팀을 구성한 포브스는 수개월간 현지에 체류하며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엄청난 금과 동 매장량을 확인한다. 1959년 3월 6일자 뉴욕타임즈는 ‘서부이리안 지역에서의 금광발견’을 보도하였다. 그 다음해인 1960년 프리포트 설퍼사와 이스트 보르네오사는 공동탐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수하르토 장군은 프리포트사의 투자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1967년 1월 법률 제1호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그 해 4월, 슬라멧(Slamet Bratanata) 광업부장관과 프리포트사 최고경영진간에 투자계약이 체결된다. 이 계약은 수하르토 장군이 서명한 첫 해외광업투자사례가 된다. 그리고 해외산림개발 투자업체인 한국의 코데코사와 필리핀 발고손사(Valguson)도 이 투자법의 그늘아래 1968년 산림개발부문 해외투자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된다.

오랜 탐사기간을 거쳐 1973년 프리포트사는 상업생산에 들어갔고, 재선대통령에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 1973년 3월 3일 개업행사에 참석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여 ‘서부 이리안주(Propinsi Irian Barat)주’ 를 ‘이리안 자야주(Propinsi Irian Jaya)주’ 로 개칭한다. 이후 광구의 규모가 확대되어 추가 개발자금이 필요하던 프리포트사는 1980년 짐 밥 모펫(Jim Bob Moffet)이 사주인 맥모란사와 합병하여 오늘날의 프리포트 맥모란사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렇듯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긴 프리포트사가 2021년 광권계약 만료를 앞두고 정치세력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리고 있다. 프리포트사가 1967년 정부측과 체결한 계약서상엔 ‘새로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 만료 후 광권 매매 시는 시장가에 근거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다분히 프리포트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광업법이 기존 프리포트 계약내용과 많은 부분이 상충되어 연장여부는 물론, 소위 정부와의 ‘6개항 재협상’ 조건에 좌초되어 오랫동안 정부측과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이번 스캔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프리포트 현지법인 사장인 마룹은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지시에 의해 서띠아 노반또, 마룹, 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장관은 이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여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본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서띠아 노반또 국회의장은 결국 의장직을 잃고 말았으며, 오일 마피아의 큰 손이었던 리자 할릿도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증인으로 소환명령을 받아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다. 대화내용에 66회씩이나 거명된 루훗 뻬자이판 정치안보조정장관도 정치적 입지에 손상을 입은 셈이며, 프리포트사와 정부간 중간매개자 역할을 맡아 2015년 1월 취임하였던 마룹은 ‘1년계약’ 을 연장하지 않고 지난 1월 사임하고 말았다.

이번 프리포트 사태를 보면서, 에너지 자원사업은 그 특성상 숙명적으로 정경유착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위험부담은 불가항력적임을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자원민족주의’ 흐름은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숙고하여야 할 난제로 잠복해 있다. 수년 전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치열한 로비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온 한국계 에너지기업 K사 경우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설명; 1967년 4월 띠미까지역 ‘에르스트버그(Erstberg) 광산’ 개발 계약서에 서명하는 관계자들. 앞줄 왼쪽부터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사장 포브스 윌슨, 프리포트 본사 최고경영자 로버트 힐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한 슬라멧 광업부장관. 뒷줄 왼쪽은 증인 자격의 마살 그린 미국대사.

본 <논설위원 칼럼>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종결합니다.

그 동안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고자 올림



## 2005년 SBY 부산 방문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주재 대사로 3년 근무하는 동안 우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한 차례, SBY의 한국 방문은 두 차례 있었다. 다시 말하여, 2005.11 SBY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2006.12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2007.7 SBY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주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느냐는 두 나라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의 하나이다. 나의 임기 3년 동안 매년 정상 방문이 있었을 정도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나의 부임 전 해 2004년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3,000 만 불 수준이었다. 두 나라 사이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가 1997/8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수하르트 정권의 붕괴 때 바닥을 쳤고 내가 부임하던 즈음에도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가 SBY 이후 회복 추세를 보였으며 이의 시작은 2005년 SBY 부산 방문부터이었다.

### SBY, 30여년만의 한국 방문

제 13 차 APEC 정상회의가 2005.11.18-19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SBY도 이 회의 참석하러 회의 개최지인 부산만 방문하기로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BY는 1974년 미국 출장 가는 길에 자신의 약혼자(현재 부인)와 장인이었던 당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보기 위하여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 후 한국에 오지 않았다.

지금의 한.인니 관계라면 부산 방문 前, 아니면 後라도 한국 공식 방문을 추진하여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국내의 이미지는 최악이었다. 쓰나미(2004년), 국제 테러(2002년 발리 테러 이후 매년 발생), 수하르트 정부의 독재 및 부정부패, 그리고 1998년 수하르트 대통령의 퇴진 후 6년 간 3 명의 대통령이 교체될 정도로 불안한 정국 및 거리 데모 등 모두 부정적인 보도뿐이었다. SBY가 비록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취임 1년 밖에 되지 않아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 방문이 SBY 내외에게 추억꺼리를 만들고,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SBY는 외국투자 유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과의 모임을 주선해 주면 아주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만남에 바쁠 터인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과연 응할까, 또한 기업인 모임을 누가 주최하며 그 비싼 경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등 모든 것이 답답할 뿐이었다. 이럴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불면증이었다. 이런저런 해답 없는 고민으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의 의전관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에 대한 예우는 양자 방문이나, 아니면 다자회의 참석이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양자 방문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국빈 만찬, 경제 4 단체장 주최 오찬 연설회 등 대부분의 일정을 주선하고 소요 경비도 대부분 부담한다. 반면, 다자회의 참석의 경우, 회의 참석 일정 이외 다른 일정은 각자가 주선한다. 한국은 최소한의 의전, 경호와 차량, 및 제한적 경비만 부담한다. 나라에 따라 차별대우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큰 나라 정상들은 한국 기업인 초청 행사를 포함하여 별도 일정 마련에 불편이 없다.

### 그런 돈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2005.10.9 일요일. 당시 한인 회장이자 한인상공인회 회장인 승은호 코린도 그룹회장과 골프를 마치고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에서 승 회장이 먼저 SBY 방문 준비 상황을 물었다. 그러면서 SBY 방문 관련 한인회가 할 일이 없겠는가, 우리 정부가 별도 일정을 마련해 주기 어려우면 한인회가 숙소 호텔 앞에서 환영 꽃다발이라도 걸어 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인 간부 몇 명도 같이 있었다.

나의 귀가 번쩍 뜨인다. 이에 나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SBY를 초청하여 소규모 조찬 모

임을 갖고 한국 본사 기업을 부르고 수행 인도네시아 기업인 및 인니 교민 상공인을 초청하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으나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자 승 회장이 그런 돈을 아껴야 되겠습니까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든 걱정 말고 추진하자고 흔쾌히 대답하였다. 십년 먹은 체증이 풀리면서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당초 3-40명 수준의 소규모 모임 계획에는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다. 승 회장은 약속대로 APEC이 개최되는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90 여명의 조찬 경비를 부담하였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이었다. 월요일 출근하는 길로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당시 회장 소피안 와난디에게 SBY 방문 문제와 관련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넣었더니 만나자는 회신이 바로 왔다.

SBY는 그 해 (2005년) 부산 방문에 앞서 호주, 일본, 미국,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두 가지가 주목되었다. SBY 방문 준비 과정에서 와난디 회장을 사전 파견한다는 사실과, 다른 한 가지는 방문 기간 중 현지 기업인들과의 오/조찬 연설회 등을 가진 후 3-4 개 기업 총수들과 개별 면담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추어 와난디 회장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와난디를 만나서, 한국의 의전관례를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나 경제 단체들이 모임을 주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해를 구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인도네시아 한인상공인회 회장 (겸 한인회장) 주최 조찬 모임을 갖고, 이 자리에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본사 CEO와 임원들을 초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와난디는 나의 설명을 듣고 한참을 생각한 후 추진해보자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승 회장 명의의 초청 서한을 만들어서 외교부에 원본을 보내 공식 채널로 추진하되 자신에게는 사본을 보내주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코린도 그룹은 70년 대 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목재, 조림 사업을 주종으로 하여 20 여개의 기업을 거느린 재벌 기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 소피안은 내심 삼성, LG 등 대기업이 아닌, 한인상공인회 회장이 주최하는 모임에 SBY가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저울질하였을 것이다.

나는 SBY 앞으로 보내는 한인상공인회 회장 명의의 초청장(별첨, 영문)을 만들어서 외교부 의전장을 직접 만나 전달하였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무역부장관, 대통령 수행비서, 대통령 외교보좌관, 외교부 실무선 등 관련인사들을 차례로 만나서 설명하였다. 그들은 대체로 호의적이었고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하산 외교부 장관 면담

최종 관문은 역시 대통령 해외 방문을 맡고 있는 하산 외교부 장관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관료주의 뿌리가 깊은 나라는 관료의 입김에 따라 될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교부는 대통령 해외여행의 키를 쥐고 있다.

하산 장관과의 면담이 잘 잡히지 않았다. 장관의 해외 출장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쉽지 않기도 하지만 장관 비서실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장관비서실은 대사들의 외교부 장관 면담 신청을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아예 차단하거나 묵살해 버릴 정도로 파워가 있었다. 비서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장관을 면담하려는 신참 한국 대사가 겁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다행이 이슬람 종교 일정이 나를 도와주었다.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교민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대통령을 포함하여 각료 및 주요 인사들은 라마단(이슬람의 금식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open house 기간을 설정하여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도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외교부 장관도 공관을 개방하고 방문자들을 직접 맞이한다. 나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장관 공관으로 갔다. 그 기회에 SBY 부산 방문에 관하여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고 하자, 휴가 기간(Idul Fitri)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 외교부로 오라고 한다.

2005.11.9 하산 외교부 장관실. 나는 3 가지 건을 준비하였다. SBY 한국 방문,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매각설 및 반기문 장관의 UN 사무총장 입후보 추진 관련 한국 내 움직임이다. 모두 하산 장관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산 장관과 의례적이 아닌, 업무

협의 면담은 처음이다. 하산 장관은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나라의 대사는 총국장 상대이며 장관과의 면담 기회자체를 주지 않는다. 또한, 장관에게 제기할 문제가 아닌 실무적인 의제를 거론하거나, 분명치 않는 입장을 두서 없이 이야기 하거나, 사용하는 언어의 격(수준)이 낮거나 하면 그 대사에게는 두 번의 장관 면담 기회가 없었다.

나는 단단히 준비하였다. SBY 방문 일정 관련, 한인상공인회의 조찬 계획과 참석이 예상되는 한국 기업, 조찬 모임 후 개별 면담 기업인 추천 명단을 준비하였다. 또한, APEC 회의가 끝나는 날 오후 일정과 관련하여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조선소 방문, 2 가지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 및 대사관 검토 의견도 2 쪽짜리 문서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통상 및 투자 현황, 문제점 등 경제자료를 3 쪽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한국 외교부가 청와대 보고하듯이 색깔까지 넣어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였다. 이 중 경제 자료는 나중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통하여 SBY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외교부 장관과의 첫 면담은 불과 20 여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준비하는 데 2-3일 걸렸다. 심지어 의제별로 이야기 할 내용(narration)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서울 외교부 본부에 있는 영국인 에디터에게 수정을 받아서 반복하여 읽으면서 거의 외었다.

하산은 내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가 제시하는 방안과 자료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하산은 그날 아침 국무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여의도 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사관과 직원 숙소가 한 곳에 있을 만큼 매우 넓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많은 건설회사는 이를 매입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기사건 등이 난무하였다. 필자가 하산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즈음에도 하산 외교부 장관이 동 대지를 팔도록 허가하였다는 공문 사본이 시중에 나돌던 시기였다. 11.9 면담 때 하산 장관이 먼저 이 문제를 꺼냈다. 하산은 자신명의의 허위공문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사관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언하였다. 대사관은 이를 대사관 homepage에 게재하였다.



의에서 SBY 한국 방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승은호 회장 주최 조찬에 참석하고 조찬 후 4-5 개 기업인들과 개별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개별면담 기업 선정은 바크리 경제조정장관(경제부총리)이 맡기로 하였고, 에너지 장관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방문을 강력히 건의하였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그 날 이후 하산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이 용이하게 되었다. 장관 비서실에 신청하면 하루, 이틀 내로 면담이 성사되었고 한 번도 성사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가장 자주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대사로 알려졌다. 그만큼 양국관계에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내가 하산장관과의 면담에 관하여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철저한 준비만이 외교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재국 인사를 만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교성공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내가 자카르타 가거나 하산 장관이 서울을 올 때면 꼭 만나 국제정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외교관으로서 드물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 개별면담 리스트 전시

하산 장관과의 면담이후 SBY 조찬 준비에 본격 착수하였다. 우선 숙소 호텔 내 조찬 장소를 예약하고, 자카르타 주재 한국 기업 주재원들과 연락

하여 한국 본사 임원의 참석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상무관)을 부산에 출장시키기로 하였다. 외교부와 산업자원부(당시) 본부는 다자회의 참석하는 주재국 정상들의 일정 준비를 위하여 대사관 직원을 본국에 파견하는 예가 없다고 다소 반발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본부에 이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사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했더니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 조찬에 SK 회장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조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조찬 참석인원 규모가 당초 30 명 수준을 훨씬 넘을 정도로 우리 업계의 호응도 좋았다.

한편, 조찬 후 개별면담 기업 명단에 착수하였다. 마침 바크리 경제조정 장관실로부터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 11.14 아침 장관실로 와서 SBY이 조찬 후 개별적으로 만날 기업을 선정하는 문제를 협의 하자는 내용이다. 대사관 내부 회의를 거쳐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보이는 기업을 조사하여 8 개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들에 대한 간략한 회사 소개서를 준비하여 가지고 갔다.

바크리 장관과의 협의 때 나는 그 명단을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선정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특히 강조한 것은 코린도 그룹과, SK 였다. 코린도 그룹은 1,200 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표라는 점, SK는 한국 화학 기업의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바크리 장관은 기업

인 출신(인도네시아의 최대 재벌 기업 총수)이면서도 SK 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SK 그룹에 관한 설명과 함께, 만약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화학 공업을 일으킬 계획이 있으면 SK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2005.11.19 부산 숙소 호텔에서 SBY 가 참석하는 기업인 조찬 모임이 열렸다. 당초 예상한 30명의 두 배가 넘는 70명 가까이 참석하였고(경호원, 비서실까지 포함 90 여명), 조찬 후 승은호 코린도 회장, 최태원 SK 회장, 한국 도로 공사 사장 등 4 개 기업 총수들과 개별 면담이 이루어 졌다. SK 는 그 동안 수마트라에 윤활유 공장건설 사업 허가가 나지 않아 고전하고 있었으나 SBY 와의 면담을 계기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다음 해 완공되었다. SK 측이 한인상공인회에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한편, SBY는 부산 인근에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사관은 내심 원자력 발전소 보다 조선소 방문을 기대하였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잠수함을 추가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과 러시아가 자국 산 잠수함 판매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30 여 년 만에 이루어진 SBY 한국 방문은 비록 다자회의의 계기에, 그것도 부산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인도네시아 수행원과 정부 내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SBY 가 여러 차례 한국의 발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SBY 시각에서 보면, 1970년대 한국의 모습과 2005년 한국의 모습은 정말 뿔나뿔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상전벽해(桑田碧海) 이상이 있을 것이었다. 숙소 호텔, 회의장, 해운대에서 바라 본 야경, 회의 운영 및 한국인 특유의 근면한 모습 등에 인상 깊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어마어마한 규모, 선진 기술, 자동화 및 안정성에 대비 등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력, 경제수준, 기술력의 차이를 실감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해 2006년 초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 SBY 한국 방문 문제가 회자되었고, 많은 인도네시아 각료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희망하였다. 한국 대사가 어느 장관이나 고위 인사와의 면담 약속을 신청해도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었다.

### 인도네시아의 의전 문화

SBY 부산 방문을 준비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대통령에 관련된 인도네시아 의전문화와 전통은 독특하였다.

에피소드 한 가지. SBY의 체격 치수를 얻는 문제였다. APEC 회의 마지막 날 정상들이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모여 모두 한국 두루마기를 입고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다. SBY 한복을 만들기 위하여 체격치수를 보고하라는 본부지시를 받았다. 여러 차례 외교부를 통하여 독촉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하였다. 결국 보고기한을 훨씬 넘겨 내가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사정하여 겨우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대통령의 신체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기 꺼려서 인지, 아니면 대통령이나 가족에게 감히 물어보지를 못하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해외여행이나 외국 정상과의 한국 방문 일정은 일반적으로 일 년 전에 결정되며, 외국인사의 대통령 예방 일정도 오래 전에 결정되어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이를 수시로 변경해도 아래 사람들이 감히 문제 제기를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정책결정 관행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나는 그 다음 해(2006년) SBY의 한국 방문 일정이 세 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첨부: (1) SBY에게 보낸 한인상공인회 회장 명의 초청서한 (별첨)

(2) 2005년 APEC 정상들의 한복 입은 모습

(2016.1.26. 대사의 일기 2)

His Excellency  
Dr. H. Susilo Bambang Yudhoyon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Jakarta

21st October, 2005

Excellency,

I was delighted to learn that you are to visit Busan, Korea to attend the APEC Leaders Meeting next month.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in Indonesia, including myself, have every confidence that your trip will prove highly fruitful, especially in terms of further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ties exist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the regard,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Indonesia has the honour to tentatively put forward the suggestion of hosting a small group meeting with Your Excellency during your stay in Busan, should this be possible in light of your pressing commitments. Twenty to thirty businesses have expressed an interest in such a meeting and some of them would be represented from head offices in Korea. It would be deeply appreciated if Your Excellency could spare some of your precious time to meet with us in the form of a breakfast meeting or a short audience at any time most convenient to you.

We would indeed be most grateful and deeply honoured if you were able to accommodate our humble request despite your demanding schedule.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and I would like to avail ourselves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he assurances of our highest consideration.

Sincerely yours,

Seung Eun-Ho  
Chairman

## 제목 : 인도네시아 노동부 웹사이트 이용 안내

1.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노동부 공식웹사이트가 새로운 인터넷 주소 <http://naker.go.id/>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전의 [depnakertrans.go.id](http://depnakertrans.go.id/)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5년부터 웹사이트를 대폭 개편하여 최신 노동뉴스(장관 동정, 정책, 법령 개정사항 관련 보도자료)와 구인정보, 해외근로자(TKI) 관련 정보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외국인력 고용허가 시스템 등 각종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편의성을 높였으므로 우리기업들도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현지 노동정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인도네시아 노동부 웹사이트 주소 변경에 따라 노동법령 정보 웹사이트 주소도 <http://jdih.naker.go.id> 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노동법령 외에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 정부령, 대통령, 장관령 및 장관결정, 고시 등이 모두 신속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또한 PDF원문 형태로 법령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노동법령 웹사이트에 게시된 원문 노동법령을 대사관에서 배포한 한국어로 번역된 노동법령과 비교해보면서 노동법령을 정확히 숙지하는데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의 고용허가(IMTA) 발급 신청 등 모든 절차를 2015년부터 전면 onlin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외국인력 고용허가 시스템의 주소는 <http://tka-online.naker.go.id/> 이며 노동부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배너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온라인 시스템에는 규정 변경과 최신 공지사항이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으니 우리기업들은 수시로 확인하여 착오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의 칼럼  
경제를 말한다

## 3C 리스크 : 글로벌 경제에 드리운 세 가지 불안 요인

글: 최진열 부장(KEB하나은행)

2016년 새해 글로벌 경제는 이른바 '3C 리스크'가 부각되며 불안한 첫발을 내딛었다. 3C 리스크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China Growth), 국제 유가 하락(Crude oil), 국가간 환율전쟁(Currency War)을 지칭한다. 이 중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결국 중국 성장 둔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 추세가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중국 경기 경착륙 및 이로 인한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가 산유국의 증산과 맞물리며 가파른 유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의 약 위엔화 정책이 신흥국 통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4.2%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015년에는 6.9%에 그친데 이어 올해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의 2016년 성장률을 종전 7%에서 6.7%로 하향 조정했다. 연초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은 예상치를 밑도는 전년대비 6.1% 증가에 그쳤으며, 고정자산투자 투자 역시 전년대비 2.9%p 하락한 12% 증가에 그쳤다. 정부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등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계획에도 불구하고, 연초 급락세로 출발한 중국 증시는 좀처럼 반전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4년 약 14%)을 감안 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 불안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변국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러시아 등 비 OPEC 국가의 증산 및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월 중



배럴당 26달러대를 기록, 최근 1년6개월 간 70% 급락하며 2003년 이후 처음으로 3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세계 각국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산유국들의 재정 위기 심화 및 디폴트 리스크를 확대시키며,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자금의 회수를 자극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OPEC 회원국들 간 감산을 포함한 대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 감소가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고, 당장의 현금 확보가 급한 산유국이 적극적인 감산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이다. 이 경우 향후 상당기간 현 수준의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일본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가세함으로써 중국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고평가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올들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최근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절하되었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위안화 절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만큼 좋지 않다는 해석이 확대되며, 각국의 연쇄적인 통화 절하, 즉 환율전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연초부터 부각된 중국, 유가, 환율전쟁이라는 세가지 신흥 리스크는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전망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2016년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환율 정책 사이에서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환율 및 성장 균형추를 찾아가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 제5대 양영연 한인회장 취임

2016년 1월 20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한국문화원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5대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한인회장을 맞이하는 자리로 꾸며진 이 행사는 대사관, 상공회의소, 대한 체육회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큰 박수와 환호로 양영연 한인회장과 집행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강희중 인수위원장의 한인회기 입장으로 이날 행사는 시작했다. 한인회기 인수인계 후 양영연 회장은 3년 동안 한인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힘쓴 신기업 전 한인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공로패를 증정했다.

양영연 신임 한인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배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이어받아 한인회장의 소임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심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한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한인회관 건립의 기초를 만들고, 한인사회 분쟁 조정 활성화 및 연합한인회 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축하 꽃다발을 전달한 화동과 함께 기념촬영



한인회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취임사를 하는 양영연회장



(상단좌측부터) 조태영대사, 승은호명예회장, 조규철전수석 부회장, 김신섭목사, 김인환신부의 축사하는 모습

## “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심을 다할 것 ”



신기엽전한인회장으로부터 한인회 기를 전달받는 양영연신임회장

이어 “한인회의 모든 활동이 한인동포 사회와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인사회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한인회는 최선을 다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조태영 대사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다.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멀리가자” 며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인회에 박수를 보낸다” 며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최근 자카르타 자살폭탄테러와 관련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와 카톡 방을 통해 안내문과 대처요령을 숙지해 달라” 고 당부했다.

승은호 명예 한인회장은 “한인회가 공적을 쌓기보다 정의, 행복, 평화를 추구하는 조용한 한인회를 이루기 바란다” 고 말했다.

신기엽 전 한인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더욱 더 화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인사회로 이끌어주길 믿는다” 고 말하며 양회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아르떼여성합창단의 축하연주

14년 동안 한인회에 봉직한 조규철 전 수석부회장은 “한인회 회장단은 노력봉사, 시간봉사를 하는 자리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는 자리다. 전체적인 우리 한인들은 한인회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며 “그동안 한

인뉴스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고 전했다.

기독교를 대표한 김신섭 목사는 ‘우생마사’의 지혜를 언급하며 “원망과 시비없이 한인들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김인환 성요셉성당 주임신부는 “한인회장의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화광동진’ 하는 마음으로 한인회를 잘 이끌어가시리라 믿는다” 고 축사하였다.



양영연회장은 신기업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며 감사를 전했다

아르떼 여성 합창단(지휘 김영희)의 축하노래, 시루떡 커팅 후 폐회 선언을 함으로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출범한 제5대 한인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19개의 상임 분과 위원회 별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 사회의 다양한 특별활동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 북한 제 4차 핵실험 규탄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전민식)는 한인회(회장 양영연), 자유총연맹(회장 현상범), 대한체육회(회장 최병우)의 후원으로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감행한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월14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북핵 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는 물론 동남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규탄했다. 또한 한인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이미 여러 차례나 실시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력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어 가는 북한의 실상을 지적했다.

###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 성명서>

북한은 2016년 1월6일 10시30분 첫 수소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아세안지역회의의 9개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아세안지역회의의 9개 협의회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의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자행한다 할지라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아세안지역회의의 9개 협의회는 일치단결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지구촌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핵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아세안지역회의의 9개 협의회는 북한의 어떠한 대응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아세안지역회의의 9개 협의회 일동

## 반등 교민 신년회와 제 7,8대 반등한인회장 이·취임식 열려



먼 이국땅, 반등에서 새해를 맞아 교민 문화행사의 큰 축제인 신년회와 제 7, 8대 이·취임식이 2016년 1월29일(금) 저녁 6시, Aston Primera Hote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작년대비 올해 참석인원수도 50%이상 더 늘어나 450명이 참석하였고, 신년회는 이·취임식과 더불어 더 짜임새있고 조직적으로 개최되었다. 대사관 총영사 및 신임 자카르타 한인회 회장 그리고 각계 영향력 있는 모임의 회장단, 사무총장들이 참석하여 반등 교민 신년회와 반등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축하하며 자리를 빛내 주었다.

먼저 1부 순서 이·취임식 오프닝 축하공연으로 국악사랑단체의 상모관국이 무대에 펼쳐져 그 시작을 한바탕 신명나게 만들었다. 한 가족으로 구성된 국악사랑단체는 전문가다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대사관 이명호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고, 전임회장 이임사에 이어 회장과 회장단에 그동안의 수고로움과 봉사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신임회장의 취임사에 앞서 반등 문화행사의 빼놓을 수 없는 정성희 국악인의 가야금 연주

축하공연이 있었다. 취임사에 이어 자카르타 한인회 양영연회장과 김우재회장 그리고 박성규 목사가 각 단체의 장이나 대표로서 진심어린 축사로 축하하여 주었다. 이어진 순서로 반등 교민의 자랑거리인 한글 학교가 소개되었고, 특별히 준비된 장학금은 UPI 대학생 2명에게 전달되었다.

이어서 2015년 12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반등한인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1부 순서 및 이·취임식이 폐회되었다.

2부 순서는 잘 준비된 저녁이 제공되어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그 처음을 어느지역보다 활발하고 뜨겁게 활동중인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의 검무와 K-POP 공연이 선보였는데 이로 인해 반등 신년회 행사는 달아 오르기 시작하였고, 이강용씨의 색소폰으로 신년회는 무르익어 갔다. 반등의 명가수 이영실씨의 가요곡으로 참석객들은 하나가 되어 갔으며 중간 중간에 경품 추첨과 교민들의 장기자랑으로 신년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잔치로 마무리 되었다.



늘 그렇듯이 이런 행사에서는 숨은 보석같은 재능을 지닌 교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1부 2부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전문적 방송인같은 박소연 씨가 그렇고 국악사랑단과 이영실씨 등등이 그렇다. 이런 재능들의 기부는 교민행사와 문화축제의 수준들을 높이고 더욱 교민들의 참여분위기로 이끌어 내는 것 같다.

반등의 신년회와 이.취임식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참석하여 보고 즐기는 내빈과 교민들과 달리 반등 신임회장 및 임원들의 노고는 참으로 수고로웠다. 신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 부의 위원장들과 부위원장들의 섭외가 쉽지 않았고 책임자들의 고사로 삼고초려는 부지기수였다. 늘 그렇지만 수고로움만 있고 잘 되면 본전인 그런 자리에 선뜻 나서줄 반등교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제 8대 엄정호회장은 “다행히도 적지 않은 부탁과 설득의 진심에 마음을 돌려 교민 봉사의 자리로 나와준 각 부의 임원들과 위원들이 고맙다. 교민화합, 문화홍보, 교육강화와 더불어 서로를 비방하지않는 동포사회가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임기 내에 반등 교민들에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는 신임 회장단의 화이팅이 돋보인다.

(기사제공:반등한인회 김한열 홍보위원장)





## 나는 안다

수마트라 섬과 깔리만탄 섬 틈새 놓인 방카(Bangka) 섬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주석을 채취하며 살아간다.  
주석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치명적이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고  
자갈밭이라도 데려다 놓아야 부모의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부모들의 일터, 과연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을까?

아이는 간식으로 가져온 망기스 2개를 까먹었지만 그래도 심심하다.  
햇볕은 쨍쨍, 땀방울은 송골송골, 웅덩이 흙탕물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피어오르자  
아이는 물에 들어가 먹을 갠다.

주석 채취장에서 노는 아이를 보며 감나무 아래 고추밭에서 놀던 내 유년시절이 떠올랐다.  
언제쯤이면 집으로 돌아갈까, 하며 부모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마음을 나는 안다.  
나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고추밭 고랑을 세어 본적 있으니까.

하루 종일 비워 둘 집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우리네 삶!

김성월/ 수필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 인도네시아 태권도, 태권도원과 함께 힘찬 도약 시작

## 재단-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 업무협약 체결, 전지훈련 등 공동협력

1월27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회장 Marsiano Norman, 이하 인니 협회)와 태권도(원) 및 인도네시아 태권도 진흥·보급과 활성화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이자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태권도(원)의 세계화와 글로벌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업무협약식과 함께 인니 협회에 도복 등을 지원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내 태권도 선수단의 태권도원 전지훈련 유치 방안을 논의 했다.

인도네시아의 태권도 인구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현지 지도자들은 먼 이국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권도는 ‘폼새’ 종목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시 인도네시아의 효자 종목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 김성태 이사장과 인니 협회 회장 Marsiano Norman, 조태영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김석기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태영 대사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재단과 인니 협회 간의 공동 행사와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의 세부적인 일정 조율부터 현지 총괄 안내, 중간 커뮤니케이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승중 사범(43,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폼새팀 감독)의 숨은 공로

가 컸다. 신 사범은 2011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과건 사범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자카르타에서 국가대표 폼새팀 감독을 역임하며 태권도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향후 재단과 인니 협회 사이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 협회는 “인도네시아 내 태권도 수련생들의 태권도원 전지훈련을 적극 추천하고 많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태권도로 양국의 문화 교류 및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태권도 선수단의 태권도원 전지훈련을 적극 추진해 태권도 성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고, “인도네시아 선수단이 태권도원에서 훈련하며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 태권도원을 글로벌 전지훈련의 메카로 발전시켜 태권도와 함께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 김성태 이사장은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현지 지도자 격려 및 애로사항 수렴 등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 문예총 정기총회 개최 사공경회장 및 신입 회장단, 임원진 확정



지난 1월 12일(화) 재 인도네시아 한인 문화 예술 단체 총연합회( 회장 사공경, 이하 문예총)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신입 회장단 및 임원진 선출 및 취임식을 가졌다. 사공경 문예총 회장을 도와 함께 일을 할 신입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 강희중(색소폰 동호회), 재정 및 공연부회장: 박형동(한바패 회장), 섭외 및 전시부회장: 신돈철(미협회장), 기획 부회장: 이수진(헤리티지 코리아섹션 회장) 감사: 채영애( 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사무국장 : 유은영(음협) 사무차장: 허민경(음협)

### 5월 문예총 종합 예술제 개최 예정

이날 정기총회에서 문예총은 강희중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각 단체별로 2016년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총 13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한인 문예총은 2년마다 한번 개최하는 종합예술제를 올해에는 5월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장소와 날짜 등 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한인 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을 문예총의 협력단체로 하기로 하였으며 차후 인도네시아 문화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사공경(회장) 강희중(고문) 이일하(음협 회장) 정재익(서예협회 사무국장) 김영희(아르떼 여성합창단 지휘자) 신돈철(문예총 부회장/미협 회장) 변영극(아버지양상블 단장) 박형동(문예총 부회장/한바패 회장) 서미숙(문협 회장) 채영애(감사/ 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이수진(문예총 부회장/헤리티지 코리아섹션 회장) 최정순(루시 플라워 회장) 등이다.

## 2016년 한국문협 인도네시아 지회 정기총회 개최 제 4대 서미숙 회장 및 임원단 선출

2016년 1월 9일 (토) 한국 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회(이하 문협)는 새해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4대 서미숙 회장을 문협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하였다.

서미숙 회장은 서정문학과 싱가포르 한나프레스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한국문협과 한국 수필가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필가이다.

문협은 임원진을 새롭게 정비하여 앞으로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문화적 교두보로서 문협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한국 문협의 규정에 의거한 운영 수칙들을 개정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2016년도 주요 행사로 한국의 문인들을 초청하는 문학 강연과 시화전, 문학지 발간, 문학 기행 등을 계획하였으며 각 언론과 문협 카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협의 활동을 홍보하고 한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현재 문협은 정회원과 일반, 명예회원 등을 비롯한 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문학을 사랑하는 한인들의 입회를 적극 유도하여 다양한 문학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언론 홍보 담당: 채인숙 0815.8479.7879)

##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서울 예술대학교 교육, 창작, 예술 분야 MOU 체결



지난 1월 4일, 한.인니 문화연구원(원장:사공 경)과 서울 예술대학교(총장:유덕형)가 교육과 창작, 예술 활동 분야에서 공통의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다.

서울 예술대학교는 한국 예술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예술 인재들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교육 기관으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손을 잡고 창조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각 대학들과 연계하여 정보와 기술, 예술 인력들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 자카르타 예술대학교를 비롯한 반둥공대(ITB), 반둥교육대학(UPI) Telkom University를 방문,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서울 예술대학교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연계해 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예술가들을 서울 예술대학교에 직접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상호 간의 협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괄목할 만한 교류를 이끌어 내었다.



한편 MOU를 체결하는 자리에는 2016년에 새로운 한인회의 수장으로 부임한 양영연 한인회장과 강희중 전 문예총 회장, 조용준 고문, 최인실 사무국장등이 참석하였다. 연구원에서는 안미경, 최미리 수석팀장, 한상인팀장이 참석하였다. 서울 예술대학교는 유덕형 총장과 남상남 이사, 유태균 대외협력처장, 강호정 실용음악과 교수, 이은지 연기학과 교수들이 직접 방문하여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사공 경 원장과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참석자들은 한.인니 문화연구원(원장: 사공 경)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아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오직 한 길로 달려온 과정들을 치하하며 상호 간에 실질적이고도 공통적인 예술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자고 합의하였다.

# 자카르타 리틀램 유치원, 자카르타 국립대학교 (University National Jakarta)와도 상호업무협약 체결

자카르타 등 4곳의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리틀램유치원(원장 박현순)은 지난 12월 16일 자카르타 국립대학교(University National Jakarta) 교육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자카르타 국립대학의 총장 Prof. Dr. Djaali와 부총장 Drs. Ahmad Ridwan, M.Si이 참석한 가운데, 리틀램유치원 박현순원장과 UNJ 유아교육학과장인 Prof.DR. Myrnawati Crie Handini이 서명한 이 협정서에는 각 기관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과 세미나, 워크샵을 통한 연구협력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도 및 지원 등에 기여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리틀램유치원 박현순원장은 자카르타 국립 대학 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턴쉽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실습, 학습모델 개발 등에 기여할 것이며, 두 기관은 수학, 미술, 문화수업, 프로젝트어프로치, 유아교육과정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한국-인도네시아 간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상호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지난 달 박현순원장이 초청되어 인니어로 특강을 펼쳤던 네셔널 세미나 (주제: 유아성폭력 실태 및 대비책)는 매우 의미가 크다. 자카르타 국립대학은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문가인 박현순 원장에게 한국의 사



례를 배우고 싶어 하였고 곧바로 네셔널 세미나로 연계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박현순원장은 인도네시아 유아교육분야의 각종 세미나, 워크샵, 프로그램 개발, 교사교육 등을 리드해 나가며 상호협력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자카르타 국립대학교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박현순 원장은, 유아교육학과 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행정직으로 트레이닝을 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할 것이다. 자카르타 국립 대학교는 인도네시아 국립 교육대학교로 졸업한 학생들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사가 될 수가 있으며 전공학과만 97개, 학사-석사-박사과정의 학생수가 3만명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박현순 원장은 인도네시아 미래의 교육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제9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 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시: 2016년 2월27일(토), 오후3시  
장소: 롯데쇼핑애비뉴, Fun Atrium (3층)

## 초대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 JIKS

## 고등 졸업식

1월28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는 나래홀에서 '제17회 고교과정 졸업식' 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07명을 비롯한 김승익 교장, 조태영 대사, 양영연 한인회 회장 등 인사회단체장과 교사, 학부모가 참석했다. 어느덧 성인이 되어버린 자녀를 보는 학부모들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학창 시절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설렘 속에서 열린 졸업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하나 둘씩 단상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선생님이 학생 한명 한명을 호명할 때 마다 나래홀은 호응과 박수갈채로 가득 메워졌다.

김승익 교장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겸손함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선한 인재가 되길” 부탁하며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며 졸업을 축하해줬다.

조태영 대사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이고 민주 시민이다.” 라고 강조하며 “큰 세상에서 큰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인공이고 한국의 미래다. 외롭고 어려운 힘든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가라” 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든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과 후배들은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졸업식 노래를 불렀다. 졸업생들은 기념사진을 찍어 추억을 만들어가며 제17회 졸업식이 마무리됐다.

### \*졸업생 수상 현황

대사상; 최진환, 학교장상; 송수경, 재단이사장상; 김소영, 민주평통상; 채호정, 한인회장상; 이하은, 동창회장상; 문현윤, 공로상; 추창욱 외 20명, 모범상; 정승완 외 8명



### \*졸업생 현황

졸업생수			진학 현황			
남	여	계	한국	현지대	미진학	계
45	62	107	101	3	3	107

대학	서울	연세	고려	성균관	서강	한양	이화	중앙	경희	외대	인하	건국	동국	숙대	수의과	기타	계
합격자	4	15	13	31	10	17	14	31	8	7	14	5	4	8	4	101	286

\*진학 상황 (합격 기준, 중복합격 포함)

## JIKS 초등 제 37회 졸업식 개최

2016년 1월 27일(수)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향기로운 꽃과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장식한 나래홀에서 제 37회 초등과정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총 졸업생 2506명 중 새로운 졸업생 60명을 배출한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내빈 및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나래홀에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사 보고 후 졸업생들은 한명씩 무대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고 귀빈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상 오규식(6-3), 학교장상 김지성(6-2), 한인회장상 정영훈(6-2), 재단이사장상 우종하(6-3), 민주평통동남아협의회회장상 차정민(6-1), 모범상 이현지(6-1) 외 8명 등에 대한 수상과 졸업생 전원에게 대한 꿈나무상이 수여가 있었다.

JIKS 김승익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졸업생들이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하였고, 이명호 주인도네시아 총영사, 정무웅 재단 부이사장, 양영연 한인회장은 축사로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등과정의 마무리를 축하하였다.



재학생대표로 송해성(5-2)학생이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다짐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송사를 낭독하였다. 이어 졸업생 대표로 김지성(6-2)학생이 후배들을 격려하는 말에 덧붙여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지난 6년간의 초등과정을 추억하는 감동적인 내용으로 답사를 하였다.

전체 졸업생 60명 중 53명이 JIKS 중등으로 진학하기에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6년간의 성장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의 훈훈한 졸업식이었다.



# 2/ chain reaction

Jakarta Intercultural School  
January 23rd 2016 | Saturday

J I S

T E D x J I S

TEDxJIS  
Independent TED event



(학생기자 김교빈)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은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모토로 전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강연회이다. TEDx라는 형식은 각 지역 혹은 단체에서 독자적인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원래TED 강연에 관심이 많았던 심재원(11) 학생은 JIS의 학생들,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디어, 경험 그리고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TEDxJIS를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 초에 첫번째 강연회가 개최된 후, 약 1년의 걸쳐 올해 TEDxJIS의 주제, 발표자 오디션, 강연 리허설 및 수정, 그리고 진행방식을 구상했다. 1월 23일 두번째 TEDxJIS강연회에서는 총 10명의 강연자가 “Chain Reaction”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Chain reaction은 하나의 반응이 다른 반응을 유도해 일으키고 그 반응이 또 다음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말한다.

TEDxJIS의 총 책임자이자 창시자인 심재원(11) 학생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참가자들과 TED/TEDx 커뮤니티가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같은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심재원(11)학생은 자신이 졸업한 후에도 다음 후임자가 TEDxJIS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강연자들의 영상은 유튜브와 TEDxJIS의 공식 홈페이지 ([www.tedxjis.com](http://www.tedxjis.co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비밀이 있는 가구!

최조은(자카르타 거주)



사계절이 있는 한겨울 주거공간에서도 갈라지거나 터지지않는 잘 만들어진 가구가 있다. 어떻게 나무를 삶아 건조했다는걸까?

전통가구에 현대 과학을 접목시켜 만들었던 말인가?

헤리티지 탐방으로 2016년 1월 행사는 우리 부인들의 관심사인 가구공장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30여년 동안 수작업으로 영국 왕실 가구를 만들어온 조지안가구 공장(Bekasi소재)을 헤리티지에서 탐방하기로 했다. (참가: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 회장 이수진외 22명)

인도네시아에 온지 몇 달 안되는 나로서는, 아직 적응을 잘 한다가보다 여기저기 듣고 보고 경험하기에 급급한 귀동냥이 생활을 하는 중이다. 그런데 헤리티지 탐방 소식을 접했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의 특징이며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목재라고 들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가구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여 그런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좋은 가구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헤리티지에서 주최한 조지안가구 공장 탐방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가구사업을 하시는 분, 현지 교민, 주재원 등 다양한 사람들 총 22명이 이 날 탐방에 참가하였다. 공장으로 가는 버스안에서 헤리티지란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이수진 회장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다. 또한 참가자들 한 명씩 마이크를 들고 자기소개를 하며 공장까지 가는 동안 처음 만난 이웃과 하나가 되었다. 개인 소개가 끝나고 이수진회장님은 예습이라도 해온 듯했다. 조지안 퍼니처 목재 제작 공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셨다. 원목을 판재로 켜서 6~7시간 정도 목재를 삶고, 25일가량 건조과정을 거치며 결국 목재 수분 함유율이 6%까지 떨어진 후 가구를 제작한다고 하셨다. 목재 건조 6%는 목재의 휨과 뒤틀림이 없는 한계기준수치란다. 그렇게 건조된 목재로 만들어진 가구는 대기중에 절대 변형이 안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조지언퍼니처는 한국, 러시아, 유럽으로 수출되어진 제품에도 하자가 없다고 한다.

탐방길로 타고 가는 25인승 블루버드 버스는 조지언퍼니처에서 대절해 주셨고 길 안내을 위해 앞장서는 차량도 한 대 준비해 주셔서 우리 탐방 회원들은 지루한 줄 모르고 쉽게 Bekasi 가구 공장에 도착했다. 반쯤 열린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처음으로 가구 공장을 단체에게 공개한 조지언퍼니처 김용재 사장님이셨다. 꼼꼼히 직접 목재의 전처리 과정부터 가구의 전반적인 제조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크게 5가지의 과정 (Boiling, Drying, Machining, Assembling, Carv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들려 주셨다. 막연히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했던 나에게는 오늘 가구가 만들어지는 가구 생산과정 탐방은 많은 감동과 느낌이 와 닿았다. 사장님께서 목재 수중에 따라 각기 다른 전처리 과정, 가구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finishing 공정 과정의 차이, 가구 사이즈에 따른 목재의 선별 등등 ...

일반인들은 무심코 생각해 본적도 없는 가구 제작에 따른 깊이와 폭 넓은 목재 상식및 가구 생산 지식을 전문가로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일상의 상식처럼 설명해 주셨다. 상기 5가지 과정 중 Assembling과 Carving 단계에서는 수작업이 중심이 된다고 하셨지만, 가구 공장 탐방을 하면서 목재의 전처리 과정부터 마지막가구가 생산되는 전 단계를 수작업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지언퍼니처 전 공정 과정은 면밀하고 꼼꼼하게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한가지 아이템 가구가 생산되는데 보통 30개의 틀이 이용되고, 현재 공장에선 100~120개의 다양한 아이템이 생산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 제품을 모두 직영으로 생산 품질 관리를 하신다는 사장님 말씀은 조지언퍼니처가 지금까지 좋은 가구의 질을 유



지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 같다. 죠지언 가구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종은 마호가니란다.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티크목재가 유명하다고 들었던 나는 의아해 했지만, 센스있으신 헤리티지 회장님께서 어떻게 아시는 대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호가니의 경우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종이며 목재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수종이 조각을 하기에 적합하고 나무결이 은은하여 정서적으로 평안을 주는 특징이 실내 고급가구 목재이며 죠지언 가구에서 생산하는 영국가구의 정통 목재이기도 하단다. 티크목재의 경우 목재로서는 제일 좋은 수종으로 비바람에도 썩지 않고 견고함을 자랑하지만 기름 성분이 강해 outdoor용이 적합한 목재라고 한다.

죤지언 가구 공장 탐방을 마치고 공장 문을 나서려는데 이번 헤리티지탐방회원들에게 주시려고 직접 만든 빈티지 문양의 나무 접시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셨다. 우리 모두는 추억이 될 기념품을 받고 모두들 환호성을 쳤다. 공장견학을 마치고 연이어 버스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의 죤지언 가구 쇼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는 한경순 사장님께서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맞아주셨다.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라 배가 고평 탐방 참가자들은 쇼룸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식탁에 차려져있는 김밥을 점심으로 맛있게 먹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 맞았다 ~~ 한사장님께서는 죤지언가구 역사는 17~18세기 영국 왕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가구라고 설명해주시고 죤지언이란 이름은 George I~II~III세기를 거쳐 영국 왕족들이 권위와 부를 자랑하며 사용하던 시대의 이미지를 재현시키는 이름이라고 하셨다. 죤지언 가구의 특징은 디자인자체가 세기를 거쳐 유행을 따르지 않

고 독보적인 귀족적 이미지를 유지하며 18세기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치펜데일, 퀸앤, 리젠시, 빅토리아 등의 스타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더욱 전성기를 가져온 가구 디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구디자인이나 칼라가 유행을 타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왕족의 혈통을 과시하는 디자인을 고수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다.

30년이상 가구를 제작하면서 가구를 사용하시는 공간마다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제작하신다 하셨다. 또한 가구를 구매하신 분들이 행복해하시고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 행복을 먹고 살기에 지금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셨다. 지금까지도 귀국하시는 분들의 준비물로 죤지언퍼니처는 자카르타 부인들의 로망이다. 20여년 전보다 품질과 디자인이 더욱 좋아졌다는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는 역시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경륜이라 하겠다. 가구 생산 전 공정 과정을 보고 들으며 아직까진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세한 작업을 기계가 아닌 수작업을 통해 가구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니, 유럽에서 생산되는 가구에 비해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품질과 디자인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유명세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목재가 많은 지리적 조건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구공정에 좀 더 투자가 된다면 좋은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싶다.

하루 일상의 활력을 주시고 좋은 탐방지를 마련하신 헤리티지 탐방 회장님 이하 죤지언퍼니처에 감사사를 드린다.





## 늬다리 만학도의 BIPA 도전기

글: 윤석진 (자카르타거주)

**사**실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BIPA 정규반 신청까지 지난 2년 여의 과정을 생각하면 나를 파란만장 했다. 쓰려고 하면 정말 내용이 많지만 일단 이 글의 목적이 나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BIPA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도대체 뭘 듣는지 수강하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

BIPA하면 많은 사람들이 UI(Universitas Indonesia) 의 BIPA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땅그랑 UMN(Unversitas Multimedia Nusantara) 의 BIPA 과정을 듣고 있고 여기 밖에 모르니 여기 기준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것을 이해해주시고...

UMN의 BIPA는 정규반(12주-180시간), 회화반(12주-108시간), 토요반(12주 54시간) 으로 구성되는데 회화반과 토요반이 있다는게 아주 큰 특징이다.

즉 직장인(토요반)과 회화를 위주로 원하는 사람들(회화반)을 위한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자카르타 및 자카르타 인근의 잠재적 수요층(주말만 가능하고 회화도 좋지만 문법도 배워야 할 것같은 직장인,듣고 말하기만 잘하면 좋겠다는 신규 유입

아주머니 부대 등)을 공략했다고 보는데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후발주자 입장에서 마케팅 적으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UMN 의 BIPA 과정은 총 5개의 영역 3 개단계로 구성된다고 보인다. (왜 추측형이냐면 난 거기 관계자가 아니라 추론만 가능해서...)

.....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emula : 정규반/회화반은 하나의 단계 / 토요반은 2개의 단계 (Pemula A, Pemula B)
2. Madya : 정규반/회화반은 하나의 단계 / 토요반은 2개의 단계 (Madya, Bisnis)
3. Mahir : 정규반/회화반은 하나의 단계

.....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읽고 말하고 듣기(시청각) 영역(3 개)  
 Membaca, berbicara, Menyimak -> 회화반은 이것만 / 토요반은 berbicara, Menyimak 만
2. 문법과 쓰기 영역  
 Tata Bahasa, Menulis -> 회화반은 안함 / 토요반은 Tata Bahasa 만

.....

실제로 영역은 UI나 다른 BIPA도 마찬가지로 생각되고 구성도 같은 방식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확실치는 않은데 당연히 누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 뭐... 일단 UMN은 현재 BIPA 교재 정식 출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결과물이 이번 학기 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는 중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1/3정도 책으로 공식출판(칼라)된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비공식 출판본(스프링과일 교재로 강의하기 때문이죠 뭐 흠...)

이번주에 처음 BIPA 정규과정을 듣기 시작했지만 이미 토요일 수업을 2번(Pemula B, Madya) 들은 입장에서 보면 BIPA의 정규과정을 듣는 것이 매우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건지도...)

일단 모든 주제가 1주일 단위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듣고 문법을 배우고 쓰고 읽기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 강의 당 1.5 시간)

간단히 예를 들면,

1주차 주제 : Jakarta 와 그 주변에서의 Angkutan Umum 이면 여기에 맞추어 berbicara - 3 강의 / Menyimak 2 강의 / Membaca 1 강의

Tata Bahasa - 2강의 / Menulis - 2강의로 구성되어 같은 큰 주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하고 듣고 보고, 읽고 난 후 거기에 쓰인 문법적 특성을 배우고 작문을 하는 것이다.

즉 1 주일 내내 같은 큰 주제 및 약 3개 정도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습, 복습을 해야하는 입장이 되면 밥먹고 공부만 해도 쉽지 않죠. (거기다 머리가 술과 담배에 찌들었던 40대 직장인이라면 뭐...)

그리고 1단계(Pemula)와 달리 2단계(Madya)는 사실 Tata Bahasa, Menulis 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개인적으로는 아직 들을 감양도 안됨에도 불구하고 3단계(Mahir)는 Menyimak 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듣는게 왜 중요한가는 TV앵커들이 숨도 안쉬고 이야기 하는 것을 바로 듣고 빈칸에 신나게 맞는 단어(문

장) 적어야 했던 토요일 Menyimak 의 악몽에서 이미 체험했음)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것이지만 나중에 BIPA 선택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적어보았다.

일단 한국인 다수 및 한반에 15명 이상이 듣는다면 BIPA 수업을 듣는게 절박해서 어떤 난관이라도 그냥 무시하고 '난 성공하겠다' 는 각오 정도 아니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

15명이상이 듣던 토요일과 한 6-7명 정도 듣는 지금 정규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실습(?을 하고 그것을 선생님께서 평가받는 시간 자체가 월등히 많고 질이 높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미칠 정도로 빠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토요일에서 한번이나 하면 많이 하던 것(왜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주로 하는지..)을 여기서 거의 3번 정도는 해야 한 강의가 끝나니 강제로라도 공부를 하게만든다. 그러다보니 이게 같은 시간 내에 사람이 적은 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이다. (그래도 한 6명은 되야한다. 한 3팀이 쌍으로 말하고 들으면 서로 도움이 된다. 시간도 대충 맞고...)

그리고 강의 시간에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한국인들 많은데는 별로인 것 같다. (차라리 영어로 대화를 하면 모를까 --> 물론 난 영어 잘 못하고...) 토요일은 직장인반이라 그런지 대화도 어떻게든 인니어로, 그리고 단어를 모르면 영어로 설명하고 했던게 지금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인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상관없으나 아닐 경우 한국인 많은데 가는 것은 효율상 별로인 듯 하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 친구 사귀고 애인(?) 사귀라고 하는데 한국인 많으면 그것도 뭐...)

아뭏든 40대 중반도 넘은 늙다리 만학도의 BIPA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2016년 1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MUI, “가파따르 이단 선고 준비 중”

인도네시아 이슬람율법학자 평의회(MUI)가 최근 가담자 실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파자르 누산따라 운동(Gafatar)에 관한 칙령을 오는 2월 발표할 예정이다.

MUI의 연구조사위원 리다 살라마는 MUI 소속 의원들이 족자카르타, 빨렘방, 아제 지역을 순회하며 가파따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UI 본사 소속 칙령제정과는 가파따르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단인지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다 위원은 “가파따르가 이단으로 의심되는 초기 정황들이 포착되었지만 MUI는 이 조직이 알 까다야 알 이슬라미야의 변형인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UI는 알 까다야 알 이슬라미야가 이단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자신을 예언자로 밝힌 무사텍은 2008년 남부 자카르타 지역 법원에서 신성모독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무사텍은 종전에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NII) 제단 알 까다야의 회원으로서 서부 자바의 한 산에서 40일간의 목상 중 계시를 받아 예언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리다 위원은 가파따르의 회원으로부터 무사텍이 가파따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증인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알 까다야와 가파따르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사상을 접목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가루다 항공, 수까르노 하따 제 3터미널로 이전 예정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Garuda 인도네시아는 올해 5월 중으로 이용 공항 터미널을 변경할 계획이다. Garuda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까지 사용해온 수까르노 하따 공항 제 2터미널에서 제 3터미널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3터미널은 저가 항공사(LCC) 전용 터미널로 2009년 첫 문을 열었다. 2012년 부터 국영 공항 관리 공사 양까사뿌라2에 의한 확장 공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올해 5월 Garuda의 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제 3터미널에서 운항이 이루어 진다.

양까사뿌라에 따르면 확장 공사 후 제 3터미널의 수용 능력은 연간 2,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자동차 2,400배, 오토바이 1,200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도 신설된다.

## 태평양물산, 인도네시아법인 설립 “2022년 연매출 3조”



22일 인도네시아 위노기리에서 태평양물산 인도네시아 신설법인 준공식 직후 현지 취재진의 취재에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석원 태평양물산 대표이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문형주 태평양물산 인도네시아 법인장. (사진 : 태평양물산 제공)

태평양물산은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 한 뒤 지난 22일 생산라인 준공식을 열었다.

태평양물산 인도네시아의 생산라인은 인도네시아 섬유복합단지 위노기리에 위치해 있으며 12만 3천㎡ 규모다.

이는 축구장 20개만한 크기로 이곳에서 3천 600명이 갭(GAP)과 H&M, 컬럼비아(COLUMBIA)를 비롯한 유명브랜드 제품 등 연간 850만장의 의류를 생산할 예정이다.

태평양물산은 이번에 1단계로 준공한 2개동, 40개 생산라인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7개동, 약 140개의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태평양물산은 인도네시아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석원 태평양물산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은 태평양물산의 의류제조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를 통해 매출 3조 원, 영업이익 3천억원이라는 태평양물산의 ‘비전 2022’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EC 외자 제한 철폐? 국내 사업자들 반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전자상거래(EC)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출자비율을 100%까지 허용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내 사업자들의 향의가 빗발쳤다.

루디 안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EC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기 전, 인도네시아 EC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100% 인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내비쳐 업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협회(ICT) 설립자이자 IT 전문가인 헤루 수파디 씨는 만약 위 조항이 시행된다면 국내 업체들이 고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헤루 씨는 "EC 로드맵을 구축하며 정부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외국 투자자들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을 전부 개방하고 자유화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현지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자상거래가 무역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EC 로드맵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헤루 씨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는 로드맵이 발효되는 1월 말 전에 로드맵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C 로드맵은 지난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논의 등과 맞물리며 발표가 늦어졌다.

로드맵은 EC 산업 발전을 촉진해 2020년까지 거래액을 130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영국계 컨설팅 기업 언스트앤영(E&Y)의 자문을 얻어 이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로드맵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2014년 12월부터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내각 회의에서 정식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EC 산업 발전을 위해 31가지 목표 등이 설정될 전망이다.

## 반둥 고속철도 기공식 열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참석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자바섬 고속철도 기공식이 21일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참석했다.

2019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간 150km를 잇게 된다. 이로써 자카르타와 반둥간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총공사비 55억 달러의 대부분은 중국측이 차관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고속철 사업은 일본 정부가 신칸센 수출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시작했지만, 뒤늦게 참여한 중국이 금융 면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으며 결국 중국측이 공사를 수주했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을 담당하는 KCIC(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는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인 위자야 까르야(PT Wijaya



Karya)와 크레파 아삐 인도네시아(PT Kereta Api Indonesia), 자사마르가(PT Jasa Marga), 뿌르꾸부난 나시오날VIII (PT Perkebunan Nasional VIII) 차이나 레일웨이 인터네셔널 (China Railway International Co. Ltd)이 합작으로 세운 회사다.

## 신흥국 부채거품 '빨간불' ...인도네시아도 예외 아냐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흥국의 부채 거품이 글로벌 리세션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밝혔다. WSJ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 경제국들이 성장 둔화와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신흥 경제국에 위치한 기업들의 부채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8%에 달해 2008년 이후 30%포인트 늘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130%로 미국의 7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부채 부담에 파산한 기업들 역시 급증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에 따르면 신흥국에서 파산한 기업은 2009년 이후 최고로 늘었다. 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154개로 2년전과 비교해 6배에 달한다.

글로벌 증시 대혼란의 진앙지인 중국에서 이미 산업재 부문 기업들은 공급 과잉과 높은 부채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최근 국영 철강업체 중강그룹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지난해 10월 정부 개입 덕분에 가까스로 파산을 모면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중강그룹은 지난해 12월 또 다시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연장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늘려 성장을 독려했다. 기업들과 지방정부가 부채를 끌어와 투자에 나서면서 빚은 불어났고 과잉설비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성장이 정체되고 미국의 긴축이 시작된 상황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금융협회의 소냐 김스 자본시장 수석 책임자는 중국의 채무디폴트로 인한 글로벌 리세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스 책임자는 위안화에 대한 강력한 하방 압력에 대해 중국 정부의 경제 관리능력에 대한 뿌리 깊은 우려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의 기업채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1% 불어났다. 인도네시아의 통신업체 PT쓰리콤셀(PT Trikomsel)은 2012~2015년 부채를 두 배로 늘리며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가 6년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화폐가 급락해 소비자 구매력이 휘청이며 매출도 곤두박질했다. PT쓰리콤셀은 결국 지난해 10월 4억6000만달러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은 2년 연속 침체에 진입하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활동은 극도로 위축됐지만 치솟는 물가 압박에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출도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의 부실 대출규모는 전년 대비 15% 늘어났고 파산한 기업도 55% 급증했다.

신흥국의 부채거품과 연쇄 디폴트 여파는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중국 시멘트업체 중국산수수니집단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떠 넘긴 부실채권은 5억달러에 달한다. 신흥 시장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빌려준 대출금은 3조6000억달러이다.



## 태교 2010



작가: 신선미  
작품: 태교 2010  
장지에 채색  
105 x 141cm

## 일상의 아름다움을 그리다 / 신선미 작가의 작품세계

동심  
즐거운 상상하기를 즐기시나요?



보이는 것만이 절대 진리인가 하는 의미 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꿈과 현실을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지에 그린 그림은 숨을 쉬는듯 합니다, 한가지 색을 내기위해 40~50번의 반복되는 채색은 바쁘고 급한 세상에 천천히 가자고 말해주는 듯하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천적2005,건망증2006 등의 그림을 마주하게 되었을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엔 작가의 해학에 유쾌하고 신선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힘이 느껴져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전통수묵 채색기법에 뿌리를 둔 작가의 탄탄한 기본기가 드러나며, 전통적인 붓놀림과 간결하고 담백한 묘사가 매력적입니다.

작가는 단현종 앞에서 도사가 요술을 부려 말을 탄 무사를 작게 만들었다는 [장과견명황도]를 보고 영감을 받아 ‘개미요정시리즈’가 되었습니다. 개미요정은 어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와 고양이에게만 보입니다.

“어느날 먹다 남은 과자 부수러기를 보고 나타난 개미들이 자기 몫을 챙겨 이내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렇듯 방심한 틈을 노리고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꿈과 현실의 경계, 시선이 닿지않는 곳에 조용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우리 자신은 그런 알듯 모를듯 스쳐가는 장면을 우연한 착각이거나 자신의 실수로 여기며 부정하려한다. ‘개미요정시리즈’는 점점 커가면서 무언가를 잃어가는 우리들의 어릴적 순수함을 되찾고 싶고, 주위에서 잠시간에 스쳐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기적들의 존재를 그림으로 옮겨보고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 작가노트중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것을 일상속에서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해 작가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신선미 작가는 아이 엄마가 되고 더욱 정감어린 화풍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노인이 되어서 보게 되는 세상도 그려보고 싶다고하니 기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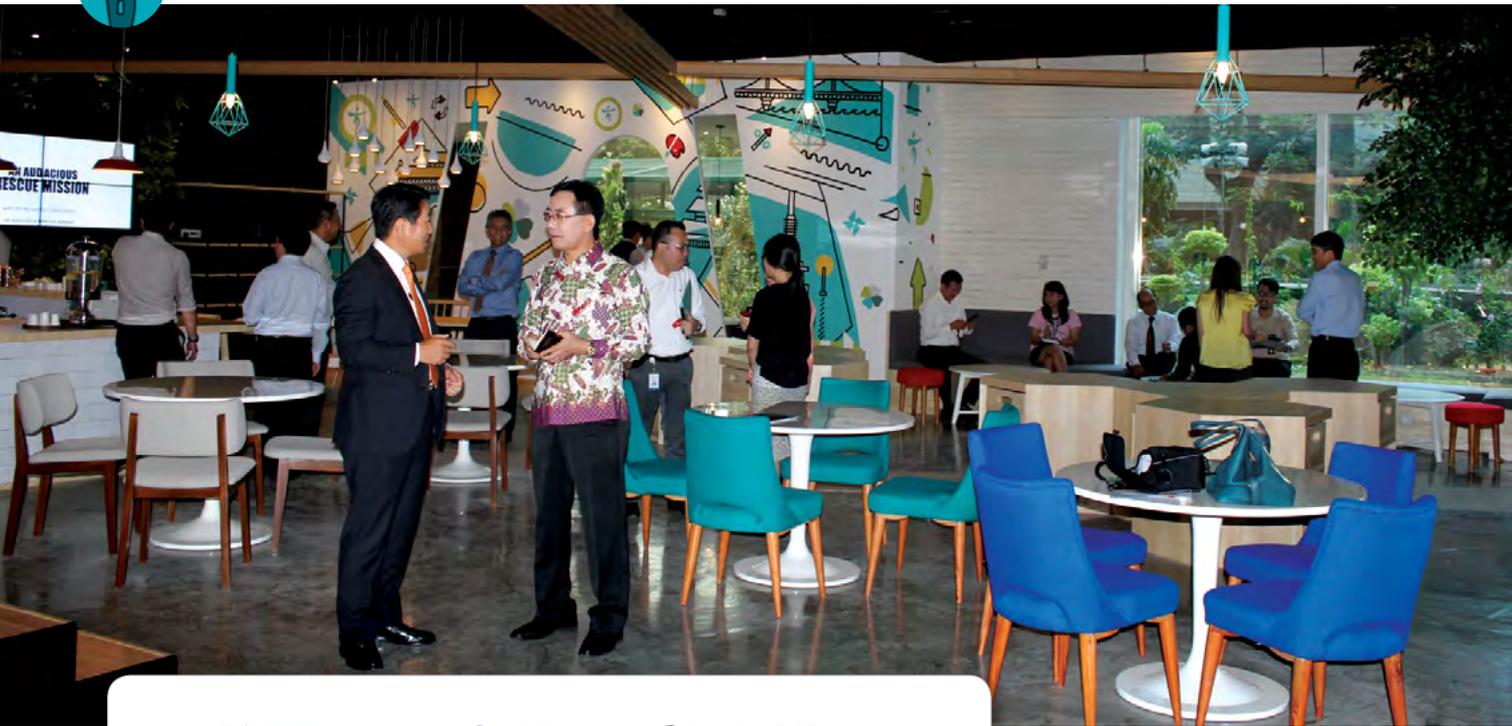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한복을 입는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식을 외국인들에게 좀 더 또렷하게 각인시키고자 하였으나 한복에서 오는 과거성을 탈피하기 위해 현대적인 소품을 배치하여 작품의 해석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양화의 통속성을 극복하고 시대의 확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아직 동양화라 하면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또한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 동양화에 대한 성실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대중에게 성큼 다가갈 수 있기를...

동양화라는 대지에 많은 이들이 꽃을 피우고 가꾸는 그 날을 꿈꿔봅니다.

글:김현경(인니 미협회원)



## KEB 하나은행, 이화수행장 은행 지점에 색깔을 입히다

### 인니 은행권 최초 브랜드플래그쉽 스토어 'Hana Lounge' 론칭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고객과 은행직원의 마주보는 레이아웃, 번호표를 뽑고 무료로 기다리는 대기형 창구 등 고객들이 생각하는 은행의 통념을 뒤바꾼 차별화된 공간이 탄생했다. KEB 하나은행 (은행장 이화수)은 2월3일 본점 위즈마물리아 1층에 은행권 최초로 브랜드플래그쉽 스토어인 'Hana Lounge' 를 론칭했다. 본 공간에는 청경 대신에 여성 로비매니저가, 창구 대신에 프리미엄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카운터가, 일자형 대기공간 대신에 안락하고 자유롭게 배치된 Cozy Lounge 가 있다. 방문고객은 계좌개설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자리에 앉아서 직원을 호출하고 직원은 태블릿 PC를 사용해 상담 및 정보입력을 진행한다. 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며 무료 와이파이존에서 프리미엄 커피와 뚜레쥬르빵을 즐기면서 CGV Blitz 에서 상영중인 영화 trailer도 감상할 수도 있다.



**“ 이곳은 Lifestyle Space 입니다.  
KEB 하나은행 이화수 은행장 ”**

진정한 로컬라이제이션과 리테일뱅킹 확대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금융기관의 범주에 가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객의 삶과 시간을 두고 심지어 서비스기업, 리테일기업과도 선의의 경쟁과 협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KEB 하나은행은 은행의 기능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저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Speed, Convenience, Smartbanking’ 이라는 당행이 정의한 고객가치가 모든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에 론칭하게된 Hana Lounge 는 이러한 저희의 생각을 담은 작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공간을 ‘Lifestyle Space’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하는 복합감성공간을 지향하고 금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를 본 공간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23일 HANA LOUNGE에서 본지 강희중 편집인과의 인터뷰하는 이화수 KEB하나은행장



## 행복을 전하는 말 한마디



서미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한 주가 시작되는 활기찬 어느 월요일,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싱그러운 월요일! 건강 조심하고 행복하게 보내~” 짧은 글이긴 해도 어쩐지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에 온기가 전해져 온다. 몇 년 전부터 각종 매체들로부터 연재가 늘어난 나의 하루는 머리도 몸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늘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잠을 자도 푹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받은 짤막한 메시지가 잠시라도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만 같다. 문득 글을 쓰는 동기들과 나눈 우스갯소리가 생각난다. 우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들보다 더 바쁘네...매월 써내야 하는 양으로 치면 아마 우리는 벌써 베스트감이야.. 그런 글 동기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척이나 위안이 되기도 한다.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얻는 기쁨이 더 크기에 고통은 그 기쁨 속에 녹아 어느새 소멸되고 만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공감하는 행복이야기를 써오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 잠시 멈추

어 뒤를 돌아본다.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니 쉬어야 한다는 내안의 메시지가 귓전에서 종소리처럼 울리고 있다. 요즘은 글쓰기가 취미가 아닌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다. 매일 동동거리는 나를 보며 요리 선생인 어릴 적 친구는 언제라도 자신의 집에 놀러오면 내가 그 시절 좋아했던 반찬으로 멋지게 밥한상 차려주겠다. 친구의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마음의 위안이 된다. 그렇게 행복을 전하는 따뜻한 말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에너지가 되나보다. 살아가는 일이란 늘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문학동아리를 함께하던 친구 중에 드라마작가가 되어 한창 잘 나가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드라마대본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스트레스로 인해 줄담배를 피워낸다고 하소연한다. 담배냄새를 유난히 싫어하는 나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아니, 몸에 좋지도 않은 담배를??? 그땐 친구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 많다.

마음을 치유하는 우리시대의 따스한 언어의 시인인 정호승시인은 ‘고통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은 삶’ 이라고 했다. 살아있기에 고통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생각되니 그 또한 행복이리라...

내 주변에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으며 살 것 같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오랜 친구 중의 한 명이 있다. 그녀는 뭐든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아, 글썄, 이제 우리나라에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게 행복이지, 사람들은 왜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목소리 톤도 높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매사에 심플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친구이기에 가끔은 그녀의 단순한 생각이 부럽기도 하다.

앞으로의 시대는 100세 인생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특별한 질병이 없고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남아있는 시간들이 결코 짧지만은 않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모여 한사람의 인생으로 완성되기에 결코 헛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요즘은 온통 긍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해 안 되는 일, 이해 못 할 일들이 점점 없어진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일 뿐 틀리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인문학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사람들의 꿈 세계를 탐색하는 일이 취미라는 교수를 만났다. 꿈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된다는 그 교수는 신화도 가르치고 사람들과 꿈을 나누는 일을 소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 분야에선 30년이 넘는 유명한 교수인데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지의 세계를 대하는 느낌이라며 늘 새롭고 설렌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꿈은 각기 다르답니다. 꿈은 언제나 접점의 메시지로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교수가 전하는 그 한마디에서 진한 행복의 향기가 전해져왔다.

며칠 전에는 몇몇 남편 대학선배 부부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면 인간이 고독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가 고독하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려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기에 어쩌면 고독과 스트레스는 서로 일맥상통한다고나 할까?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적당히 친구처럼 그들과 친해지자고 결론을 맺었다. 고독이라는 무거운 주제였긴 해도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다. 서로가 고독하다고 우겨대어서 정말 오랜만에 소리 내어 크게 웃어 보았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나이든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를 이야기 한다고 한다. 과거 속에 묻혀 사는 삶은 고독할 뿐이기에 짧게 살고 싶다면 미래를 꿈꾸고 밝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가 진정한 배려 속에 오고가는 따듯한 말 한 마디는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생각해보니 이렇듯 행복을 전하는 말 한마디는 무수히 많다. 말로 할 수 없다면 SNS나 문자메시지로 많이 많이 사용해서 말 한마디로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한인뉴스 독자여러분!

그동안 제가 4년 6개월을 연재해온 <행복에세이>를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행복이야기를 전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제 글을 사랑해주시고 이메일 또는 SNS로 격려메시지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호부터는 저희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회 작가분들께서 3개월씩 릴레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독자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신 정부령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정부령 1996년 제41호를 폐기하고 2015년 12월 22일 정부령 2015년 제103호를 공포와 즉시 발효시켰다. 그 동안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 고위직 공무원이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매스미디어에 보도됐었으며, 외국인(WNA)에게 부동산 보유 허용에 대하여 의견청취회의도 있었던 터라, 이해관계 당사자인 외국인들이 신 정부령에 적지 않은 기대를 했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사용권)의 기간이 구 정부령에서 규정했던 최장 70년에서 최장 80년으로, 10년이 더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신 정부령에서 규정한 다른 사항들, 상속,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산 공동보유 문제, 사용권 보유 자격 상실 등은 투자법, 혼인법, 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신 정부령에 옮겨놨을 뿐이다.

## 1.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유가 허용되는 외국인의 한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거주허가(KITAP) 혹은 기한부거주허가(KITAS)를 받은 외국인에 한한다. 방문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외국인이나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보유를 불허한다.

## 2.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부동산

- 2.1.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부동산은 주거 목적 독립가옥 및 아파트로 제한한다.
- 2.2. 신축 독립가옥 및 아파트 매입만 허용한다.

## 3.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

3.1. 외국인에게는 사용권(Hak Pakai/HP) 보유만 허용하고 있다.

(- 소유권(Hak Milik/HM) : 한국의 소유권과 같은 개념의 권리이다. 인도네시아국민(WNI)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소유권을 허용하며, 권리의 기간은 영구이며, 담보능력이 있으며, 상속이 가능하다.

- 경작권(Hak Guna Usaha/HGU) : 농장, 과수원처럼 토지 자체가 생산수단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 처음 35년, 연장 25년, 갱신 35년으로 총 95년까지 가능하다. 담보 능력이 있으며, 매각이 자유롭다.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준다.

-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 건축물 혹은 설비물 건축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주는 권리, 담보능력이 있으며, 매각이 자유롭고, 상속이 가능하다. WNI 혹은 인도네시아법인에게만 준다.

- 관습법에 근거한 개인 소유권, 집단소유권, 개발권, 개간권

3.2. 사용권의 기간 : 사용권에는 기간이 있다. 국가 소유 토지에 준 사용권은 처음 최장 30년 + 연장 최장 20년 + 갱신 최장 30년 = 총 최장 80년까지 가능하다. WNI 개인 소유권 토지에 준 사용권은 계약서에 약정한 기간으로 하나 상술한 국가 토지에 준 기간의 한도내에서 줄 수 있다.

3.3. 사용권기간 만기 이후의 토지에 대한 권리  
현행 토지법상으로는 총 80년이 지나면 국가토지에 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게 돌아가며, WNI 토지에 준 사용권은 WNI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토지에 준 사용권이 총 80년이 지난 후 국가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률은 집권자의 산물이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기득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지법이 1960년에 발효되었으니 80년이 되는 2040년 이전에 토지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총 80년으로 끝나지 않고, 총 80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 4. 1년 이내 매각 의무

KITAS 혹은 KITAP 이 실효하면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혹은 아파트를 매각해야 한다.

1년 이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 i) 국가 소유 토지에 준 사용권 토지 혹은 아파트를 국가에서 공매하고 공매대금은 전 사용권 보유자였던 외국인에게 준다.
- ii) WNI 소유 토지에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준 토지에 지은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 5. 상속

사용권 토지 혹은 사용권토지 위에 건축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한 “4.항”의 규정대로 처리된다.

#### 6. 외국인(WNA)과 결혼한 내국인(WNI) 배우자는 다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50%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다거나, 배우자가 한국인이기 때문

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 공증인들이 있으나 이는 혼인법을 다르게 해석해서 나온 잘못된 의견이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에 따라 혼인을 인도네시아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혼인법의 규정을 받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과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국적보유자(국민)는 토지법에 근거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분리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호적에 등록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동재산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토지 매각에 반드시 배우자의 매각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리약정서를 호적에 등록한 부부는 토지 매각 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없이 혼자서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반대로, 재산분리약정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채무 변제 의무가 있으나, 재산분리약정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이혼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산분리약정서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부부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의 50%를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줘야 하나, 등록한 경우에는 각자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6.2.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동포 소유의 토지에 담보권 설정을 거부하는 공증인이 있으나, 이는법을 잘못 해석한 잘못된 의견이며, 인도네시아에 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내용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Formulir PM 1)를 제출하면 해결된다.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신의 책임 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인에게 보여지는 한국인의 모습도 한국인 자신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비추어진 인도네시아인들은 공손하고 순진하고 외국인에게 깃들입니다.

옛 수도인 Surakarta (Solo) 의 Wonogiri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학교장님과 미팅 통역을 배석하게 되어 말하는 가운데 자와(자바)인들의 부드러움과 겸손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는데…… 중일 어두에 Maaf … Maaf .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을 연발하시며 말씀을 이어가는 교장선생님을 보면서 다른 나라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새 일일 드라마 <우리 집 꿀단지>의 주인공 오 봄을 보면 캔디 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뚜기 처럼 일어나 오히려 타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밝은 청년으로 태호는 점점 봄 이의 씩씩함과 밝은 모습에 빠져들게 됩니다.

## **Berhenti memujiku, kau membuatku tersipu**

자꾸 칭찬하지 마세요. 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대표하는 단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Malu 입니다.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유의어는 민망하다. 무색하다. 수줍다. 주저하다. 등 수줍거나 불명예스러운, 창피한 감정 (Rasa malu) 을 나타냅니다.

Malu, Sipu, Segan, Gugup 등을 문장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alu** = 마음이 불편함 (모욕, 경멸 등) 또는 부족함 때문에 민망한, 일반적이지 않아 창피함, 께끄럽거나 수줍음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merasa sangat tidak enak hati (hina, rendah, dsb) karena berbuat sesuatu yg kurang baik (kurang benar, berbeda dengan kebiasaan, mempunyai cacat atau kekurangan, dsb)] (KBBI)

- Seharusnya dia **malu** karena sudah mencuri hasil kerja orang lain.

타인의 작품을 훔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 Polisi **malu** karena belum bisa menangkap penjahat kambuhan yang sudah lama mereka buru.

오랫동안 쫓던 상습범을 놓친 경찰은 부끄러웠다. (불명예스럽고 창피한 감정)

tip) **malu-malu kucing** 구어체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로 ‘부끄러운 체 하는, 수줍은 체 하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 Jangan, kau **malu-malu kucing**

쑥스러워 하지마.

# **Kemaluan** 남성이나 여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부드러운 단어이다. 하지만 성별을 나타낼 때는 Jenis Kelamin 이라고 한다.

2. **Sipu** = 잘 모르거나 어색해서 느끼는 수줍음 [merasa malu karena belum kenal] (KBBI)

- Dia hanya bisa tersenyum **sipu** saat berkenalan dengan teman barunya.

-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면 수줍은 미소를 떨 뿐이다.

- Dia mahir melancarkan pujian yang bisa membuat orang **tersipu**.

그의 탁월한 계속되는 칭찬은 사람들을 쑥스럽게 한다.

3. **Segan** = (마음이) 내키지 않는, 꺼려하는, (겉이 나가나, 공경하여) 꺼리는, 수줍어하는 뜻을 갖는다. [1. malas (berbuat sesuatu); enggan; tidak sudi; tidak mau; tidak suka 2. merasa malu (takut, dan hormat)] (KBBI)

- Wibawanya yang luar biasa membuat banyak orang **segan** kepadanya.

- Jika ada yang saya salah jangan **segan-segan** memberitahuku.

- 내가 틀린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어라/ (알려주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4. **Gugup** = 주저하다, 당황하다. 떨리다 등을 나타내는 뜻으로 ‘창피하다, 수줍다’와는 구별되지만, 어떠한 상황에 따라 긴장하거나 혼란한, 겁을 먹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수줍어 (Malu, Sipu) 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와 대립의 긴장이 아니라 당황하거나, 떨려서 드는 정신이나 감정 따위의 긴장 (Gugup) 해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berbuat atau berkata dalam keadaan tidak tenang; gagap; sangat tergesa-gesa; bingung] (KBBI)

- Ia gagal dalam tes wawancara itu karena terlalu **gugup** sehingga kurang lancar dalam menjawab pertanyaan yang diajukan.

- 그는 너무 긴장해서 (떨려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터뷰(테스트)에서 떨어졌다.

- Para murid mulai **gugup** mengerjakan soal ujian mereka karena waktu hampir habis. 학생들 전부 시간이 임박해오자 긴장(당황)해서 시험문제를 풀었다.

## 알고 갑시다

### 인도네시아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받아보면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수료 (Selesai, Rampungkan) 또는 졸업 (Berwisuda, tamat, diploma) 을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의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학력을 판단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급여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과 동일한 점은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학사 4년의 학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1학기 2학기라 표현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1 학기를 Semester Ganjil (7월-12월) 2 학기는 Semester Genap (1월-6월) 이라 한다. 교육은 다음과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은 초,중,고 를 포함하여 기본학제기간에 종교 교육 전문학교가 있다는것이다.

### 1 Pendidikan umum

일반 교육 :

SD (Sekolah Dasar) : 초등학교,

SMP (Sekolah Menengah Pertama) : 중학교,

SMA (Sekolah Menengah atas) : 고등학교

### 2 Pendidikan kejuruan

직업교육 : 대부분 중등학교로 SMK (Sekolah Menengah Kejuruan) 중등직업학교라고 한다. 예를들면, SMK Negeri 1 는 제 2 국립직업고등학교 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Negeri 대신 Swasta 를 사용하면 된다.

SMK Swasta 는 사립 직업고등학교 이다.

### 3 Pendidikan akademik

아카데미 (고등) 교육

**Sarjana** : 학사과정, **Pasca Sarjana** : 학사과정 이후의 과정 (석, 박사 과정) 을 칭한다.

또는 고등 교육 기관은 **S1** (4년제 학사), **S2** (석사), **S3** (박사) 외에 **D3** (Diploma 3) 3년제 전문대학: 이론(30%)과 실습(70%)로 하는)와 **D4** (Diploma 4) 4년제 전문대학) 으로 구분된다. 고등 교육 기관으로 대학과 아카데미 외에 **Politeknik** 이라는 기관이 있다. 전문 교육 기관으로 과학기술 전문가를 육성하는 기능 교육 기관이며 학사 과정의 이공계를 뜻하기도 한다.

### 4 Pendidikan profesi

전문가 교육 :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군인, 기술자, 교육자, 공증인 등 전문기술자격증을 요하는 예비 전문가들이 학사 과정 취득 후 받게 되는 과정

### 5 Pendidikan vokasi

직업(직무) 교육형태로 상기 D1,2,3,4 의 교육 형태를 포함한 실업고등교육 기관이다.





## 알차고 재미난 국립 박물관 한국어 유물 해설공지

제대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한 박물관 유물해설전문가  
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어로 즐기시  
기 바랍니다.

대상 : 박물관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선착순 25명

장소 : Jl.Medan Merdeka Barat No. 12  
Museum Gajah (코끼리 박물관)  
모나스 광장 원편

일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전후

인도웹과 Pagi 앱에 댓글을 달아 신청해주세요  
헤리티지 밴드에서도 신청받습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

## 헤리티지 회화 클럽 회원 모집 안내

영어 /인니어 중급 회화

회비 : 10만 루피아/회

회원 가입 필수

신청 : leesoomi@hotmail.com

헤리티지 밴드/ 인도웹/Pagi 앱

시간: 제 2주 목 10시반~ 12시반

제 4주 토요일 1시반~3시반

(모든 시간 변경 가능)

장소: 헤리티지 도서관/(물 플라자 스나얀/  
Sentral Senayan Satu 17fl)

## 제 36차 헤리티지 탐방-수마트라 툰바 호수 안내

일시: 2016년 2월 23일(화) ~26일(금)

장소: 수마트라 메단 토바 호수

회비 : 620만루피아(가루다 항공편)

회원 가입 필수: 65만 루피아 /가족4인 35만 루피아/개인

헤리티지 도서관 021)572-5870

헤리티지 코리안섹션에서 가장 인기 많은 토바 호수 탐방입니다.

선착순 30명-신청이 늦으면 못갑니다!

신청 접수 : 카톡아이디 yunhirim / 헤리티지 밴드

영문 성함과 전화번호, 여권사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은행 송금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헤리티지 회원 가입: 회비는 인도네시아 문화 지원 활동에 전액 활용됩니다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

회장 이수진

# 1 왜 세계는 인도네시아에 주목하는가

저자: 방정환/ 유아이북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최대 경제대국을 가다

저자 방정환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대학원에서는 법학을 공부한 언론인 출신 비즈니스맨이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산업부, 사회부, 기업경영팀, 부동산부 등을 거치며 기자 생활을 하던 중 미국 하와이와 일본 도쿄에서 연수를 받으며 해외시장에 눈을 떴다. 이후 싱가포르에 위치한 글로벌 교육기관에 몸담았다가 2013년 한국계 투자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인도네시아와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역사 및 문화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국제 이슈 등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 2억 5천만 인구의 잠재력에 베풀하라!

대한민국 청년이 만난 진짜 인도네시아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인도네시아에 쏠렸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책은 드물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 인도네시아는 반동회의 같은 세계적 이슈나 발리 같은 휴양지가 있는 나라로만 국내에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과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를 모르고서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없다. 이 책은 언론인 출신 비즈니스맨인 저자가 직접 인도네시아에서 발로 뛰며 얻은 생생한 정보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은 물론 경제, 관광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을 실었다. 아직은 아는 사람만 아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화를 엿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독해야 할 책이다.



# 2 트렌드 코리아 2016

저자:김난도, 전미영 외4명/미래의 창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16 전망

2016년, 원숭이처럼 재치와 기지로 위기를 극복하라!

해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6』. 대한민국 청춘 멘토 ‘란도쌤’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2016년 ‘원숭이 해’의 한국 소비 문화의 흐름을 예측하며, 위기의 터널을 재치와 기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16년 대한민국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MONKEY BARS로 요약된다.

트렌드 코리아가 전망하는 2016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를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플랜 Z’ 소비다. 풍요와 빈곤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시대, 개미와 벼랑이의 정신을 동시에 탑재한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기업의 고심도 더 깊어질 전망이다. 더 이상 브랜드에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 뛰어난 가성비가 답의 전부일까? 1인 미디어와 있어빌리티, 해시태그로 뭉친 취향공동체, 그리고 원초적 본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소비자를 열광시킨 10대 트렌드상품을 선정해 그 배경 트렌드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 3

## 파이버

저자:덴 자드라/ 앵글북스

“모든 변화는 온전히 ‘나’ 로부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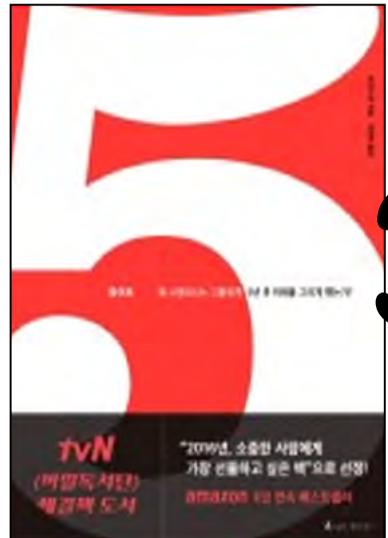
당신의 오감을 움직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주는 디자인 사고법 『파이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3,4학년들에게 기말고사 대신 자신의 5년 후 전혀 다른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과제를 내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신의 문제점을 재구성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일까?

신간 『파이버(주앵글북스)』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크레이티브 컨설턴트, 동기부여 강연자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초빙하고 싶은 인물로 손꼽히는 덴 자드라의 대표작이다.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질문을 통해 5년 후를 그리는 이 책은 독자 스스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이끈다.

“지금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지금 여

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삶이라는 여행이 갖는 의미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당신에게 있어 삶이란 무엇이며,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도록 여러 가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나아가 각 주제별로 자신의 모습과 미래를 보다 다각화하여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여, 지금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장단점, 현재 마음의 상태, 앞으로 삶의 비전과 가치, 생활의 밸런스와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보다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그려준다.



# 3

지금 자신을 바꾸고 싶은가? 의미 있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꾸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곤혹스럽다면 무조건 이 책을 펼쳐보라. 책 『파이버』는 하루에 한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삶은 더 이상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이버』가 매년 ‘가장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 2



# 1



291회 문화탐방

Kota Tua (제 6차 정기투어)

일시: 2016년 2월 13일 (토) 9:00-14:00

집결: 카페바타비아진행: 안미경, 조은숙 수석팀장

신청: (SMS/KT) 안미경 수석팀장 081514216766

최우호 팀장 081290478845/ 0816-190-9976

회비: 30만루피아(비회원 35만) 점심 등 일체 포함

새로운 편집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미리입니다. 편집위원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매일경제에 있었던 경력과 현재 포브스인도네시아의 기자 활동을 인정받아 새롭게 한인뉴스의 편집위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한인뉴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린뉴스. 항상 변화하는 뉴스, 그리고 한인을 위한 뉴스가 되는 데 힘을 보태는 편집위원이 되겠습니다.

한인뉴스에 새롭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신돈철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주한 지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인뉴스는 늘 옆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소식들을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고, 때론 가이드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이곳 저곳을 안내해 주었지요. 이젠 제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한인뉴스의 한 편집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인뉴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변화,  
새로움,  
성공적!!  
최인실 편집위원



(좌로부터) 황미리 편집위원, 신돈철 편집위원, 황윤홍 편집위원, 강희중 편집인, 양영연 발행인, 김문환 논설위원, 최인실 편집위원, 홍석영 편집장

## 현대사회의 설

근대국가에 들어 우리나라에는 음력설(구정)과 양력설(신정)로 두 개의 설이 있었다. 이른바 이중과세(二重過歲)라는 것이다.

음력설은 전통적인 명절, 곧 설을 의미하며 양력설은 현재 일상력으로 사용하는 태양력(양력)에 의한 설이다. 그러나 전통명절은 설날이며 구정(舊正)이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요즘 설날은 추석과 함께 전후하여 3일간 연휴이다. 그러나 구정으로 일컬어졌던 ‘설날’이 오늘날과 같이 본명을 찾기까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와 나란히 할 만큼 진통을 겪었다.

1896년 1월 1일(음력으로는 1895년 11월 17일, 이 기준으로는 고종 32년)에 태양력(양력)이 수용되고도 우리의 전통명절인 설날은 이어졌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수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의하여 설날과 같은 세시명절마저 억압했다. 그들은 우리 명절 무렵이면 떡방아간을 폐쇄하고 새 옷을 입고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떡칠을 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반면에 일본의 명절과 그 행사의 의식(儀式)을 한국에 이식하여 강요하기도 하였다. 가령 일본 명절인 천장절(天長節)·명치절(明治節)·기원절(紀元節) 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갖가지 행사에 한국인을 참가시켰다. 그런가 하면 신정에는 시메나와(표승=標繩)라 하여 새끼에 굴을 꿰어 대문에 달게 하고 단오절에는 고이노보리(리치=鯉幟)라 하여 형겅으로 잉어를 만들어 풍선처럼 띄우게 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일인들의 방식대로 양력과세를 강요했는데, 이는 광복 후 공화국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설날’과 양력 1월 1일인 신정(新正)을 명절로 여기는 이중과세 풍속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이중과세의 낭비성을 들어 금했으며 산업화시대에 와서는 낭비성과 어울

러 외국과의 무역통상 관계를 들어 신정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신정이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때에 맞추어서 쉬고 ‘구정’ 때에는 외국에서는 모두 일을 하므로 우리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 수지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시 음력 기준의 추석은 휴일로 삼았다는 것은 모순되는 논리였다.

오랫동안 공휴일 또는 비공휴일 문제로 몇 차례 오락가락하던 우리의 설날은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되어 1일간 국가적인 공휴일이 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한국인의 생활 자체가 민속인데,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은 붙이는 것은 실로 어색하고 궁색했다. 그러다가 1989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본명인 ‘설날’을 찾게 되자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70~80년만에 설날을 되찾았다며 떠들썩했었다.

한때 신정도 3일간 연휴로 하다가 다시 2일로 했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 하루의 휴일로 축소되어 3일 연휴인 설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설날을 전후하여 성묘하는 세시풍속은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갖가지 세시풍속은 퇴색되거나 단절되었다. 다행히 근래에는 민속박물관과 민속촌 등 민속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민속놀이관을 벌이고 이를 찾는 가족들이 날로 늘고 있다. 떡국을 끓일 가래떡을 기계로 빼거나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아직 떡국을 명절식으로 하는 세시풍속도 전승되고 있다. 떡을 먹지 않아서 밥으로 차례를 지낸다는 가정도 있지만 설날과 떡국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6년 안인외 임원잔조금 명단

2016년 1월 5일 - 2월 1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1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SWANA PERKASA	2016	1,000
2	한인회 이사	길 병 완	PT. DAEYOUNG DUNIA SUBUR	2016	1,000
총 금액					(지난 달포함) US\$ 3,000
					(지난 달 포함) Rp.135,000,000

## 2016년 안인외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2016년 2월 1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1	김 영 환	2016	300,000
2	이 현	2016	300,000
3	최 우 범	2016	300,000
4	신 규 태	2016	300,000
5	강 희 중	2016	300,000
6	최 석 일	2016	300,000
7	임 진 섭	2016	300,000
8	최 인 실	2016	300,000
9	조 용 준	2016	300,000
10	김 종 성	2016	300,000
11	김 태 화	2016	300,000
12	박 형 동	2016	300,000
13	김 영 희	2016	300,000
14	이 일 하	2016	300,000
15	사 공 경	2016	300,000
16	양 승 식	2016	300,000
17	이 수 진	2016	300,000
18	채 영 애	2016	300,000
19	서 미 숙	2016	300,000
20	변 영 극	2016	300,000
21	최 정 순	2016	300,000
22	양 영 연	2016	300,000
23	김 재 민	2016	300,000
24	김 희 익	2016	300,000
25	신 둔 철	2016	300,000
26	이 원 만	2016	300,000
27	배 희 윤	2016	300,000
28	김 현 동	2016	300,000
29	윤 석 환	2016	300,000
30	황 재 규	2016	300,000
31	김 영 화	2016	300,000
32	이 기 열	2016	300,000
33	김 종 주	2016	300,000
34	이 호 완	2016	300,000
35	김 문 환	2016	300,000
36	길 병 완	2016	300,000
37	INKOR PRIMA COAL	2016	300,000
38	홍 석 영	2016	300,000
39	NO NAME	2016	300,000
40	황 윤 흥	2016	300,000
총 금액			Rp.12,000,000

##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 통역봉사자(한인외 소속) 모집 안내

자격: 인도네시아거주, 인니어 능통

연령: 제한없음

인원: 약간명

전화 : (021) 521-2515

#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가 가

**한식왕**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훈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공지능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쿼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신돈철 부회장/ 전시/ 미협 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 공연/ 한바패 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 기획/ 헤리티지 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 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유은영 사무국장/ 음협 0812 924 1860  
허민경 사무차장/ 음협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변영극 08159101898

아르떼여성합창단 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현지단체 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김균아저씨 고기고기 7279 5750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야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Hits(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분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Hits)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521 2522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올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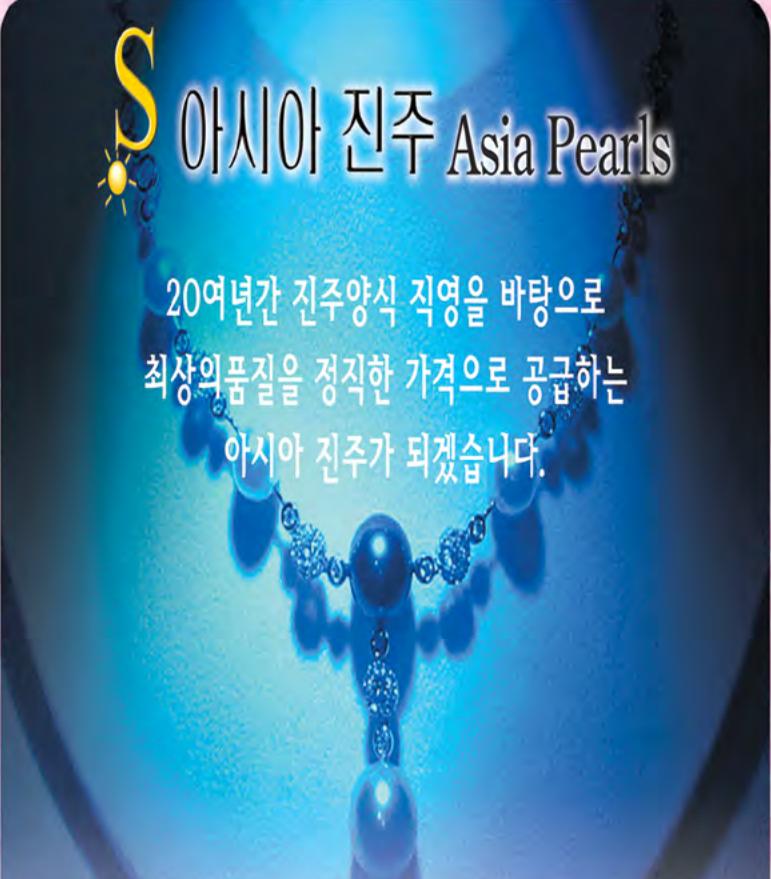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989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에메랄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 HP. 0816-873-176  
 | HP. 0816-1390-333  
 |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021)521 2515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싱가폴항공.....021)570 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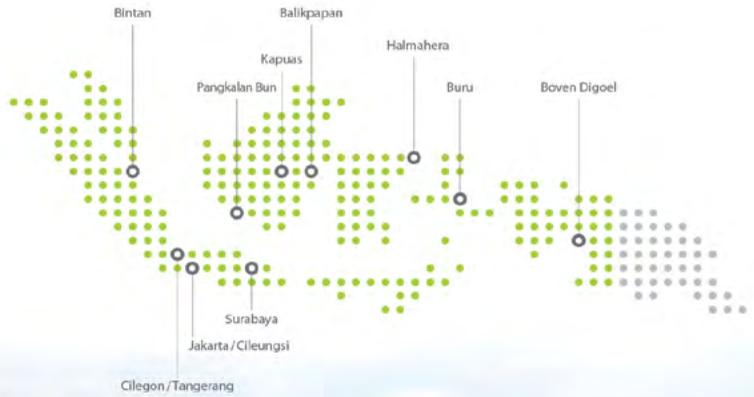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 KORINDO Plants the Green



##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이노메이트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디자인 회사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과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